

COVER STORY

2020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시가 있는 산골 이야기 ⑬

별

아카데미 지상강좌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2020

음악,
치유를 위한
8가지
레시피

BUSAN
CHAMBER
FESTIVAL



팥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지휘 김종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작곡 박영란



작곡 이기녕

협연



성주굿 조갑용



피리 진형준



설장구 민영치



가야금 문정원, 김소정, 김지연, 유승희
BORAGAYA (Busan gayageum OrchestRA)

2020. **8. 12** | 수 | 20: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연주곡목

◆ 1부

- 성주굿을 위한 국악관현악
편곡 이준호, 성주굿 조갑용
- 국악관현악을 위한 [부산환상곡] (2020) - 위촉 초연곡
작곡 박영란
- 프랑스 오브 제주·프론티어
작곡 양방언

◆ 2부

- 국악관현악과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 [침향무]
작곡 황병기, 가야금 문정원, 김소정, 김지연, 유승희
[BORAGAYA(Busan gayageum OrchestRA)]
- 피리와 국악오케스트라를 위한 아침광안 "여명 그리고 일출" - 초연곡
작·편곡 이기녕, 피리 진형준
- 설장구 협주곡 [오딧세이(Odyssey-긴여행)]
작곡 민영치, 설장구 민영치

객원 신디 박수현, 드럼 윤혁성
베이스기타 정우진, 일렉기타 이달현
해금 백진주, 박서윤

제작
부산작곡마당
금정문화회관

위촉 작곡가 (공동)
신동일 오세일
진소영 백현주

작사·연출
김지용

지휘
김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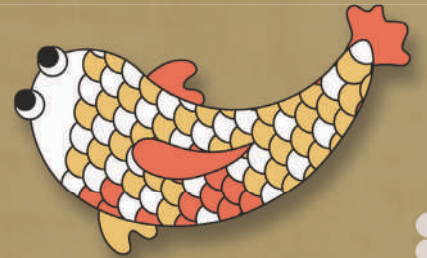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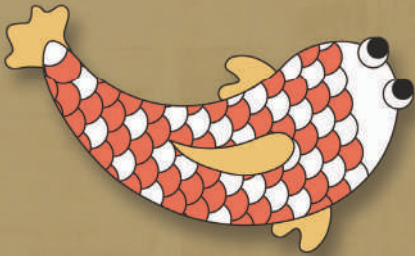
출연
독창 김유섬 (소프라노)
조윤희 (테너)

합창 부산지휘자합창단
관현악 작곡마당챔버오케스트라

세상에 내려온 금빛 물고기 · 금어기행 ·

金魚記行

개관 20주년 기념 창작음악극 (전 4장)



2020년 9월 5일(토) 오후 5시

| 9월 4일(금) 오후 7시 30분 시연공연으로 개최됩니다.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권 | R 3만원 S 2만원 A 1만원 입장연령 | 만 7세 이상 *예매는 1일 전 오후 5시까지, 현장 구매는 공연 당일 잔여좌석에 한해 가능합니다.

할인 | 50% 국가유공자, 장애우(동반1인), 의사자, 의사자 유족, 기초생활수급자(본인) 30% 금정구민(본인), 학생 20% 20인 이상 단체, 정기회원(본인)

주최 | 금정문화회관 예매 | 금정문화회관 인터파크 공연문의 | 051.519.5661~3

제 74회 음속도명품콘서트 - 시리즈 II 고전시대

첼리스트 '양성원' & 피아니스트 '빈센트 드 브리스'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콘서트

음속도명품콘서트 두 번째 시리즈 '첼리스트 양성원 & 피아니스트 빈센트 드 브리스'가 오는 8월 21일(금) 오후 7시 30분 음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명품콘서트에서 개최되는 공연은 고전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며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리는 프로젝트로 클래식의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첼리스트 '양성원' & 피아니스트 '빈센트 드 브리스'



2020.8.21. | 금 | 19:30
음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음속도명품콘서트 - 시리즈III 낭만시대 9.26.(토) 16:00

'금나새 & 뉴월드챔버' 그리그와 차이코프스키

음속도명품콘서트 - 시리즈IV 현대시대 10.6.(화) 19:30

소스타코비치 No.5 & 거쉬인 '렐스디 인 블루'

생활 속 거리두기
← 한 칸 띄어 만나면기 좌석제 →
마스크 착용 의무화



CONTENTS

8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예술의 초대 August 2020 Vol.344

2020년 8월호 통권 344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용관

편집인 최용부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장 정복엽

발행일 2020년 7월 25일

디자인·제작 호민디앤피

06 Cover Story

BNK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2020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12 Column

문화예술이 살아 움직이는
일상의 현장을 그리워하며...

14 Poem

시가 있는 산골 이야기 ㉓
별

16 골목에서 만나다.생활 속 문화공간

당신 곁에 바짝 다가선 예술의 힘
스페이스 움

18 Academy Class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20 Preview

28 Issue

2020 제1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염원, 하늘에 닿다

32 Review

38 Program Guide

50 New Book

51 BSCC News

52 Column

극장장의 손 편지 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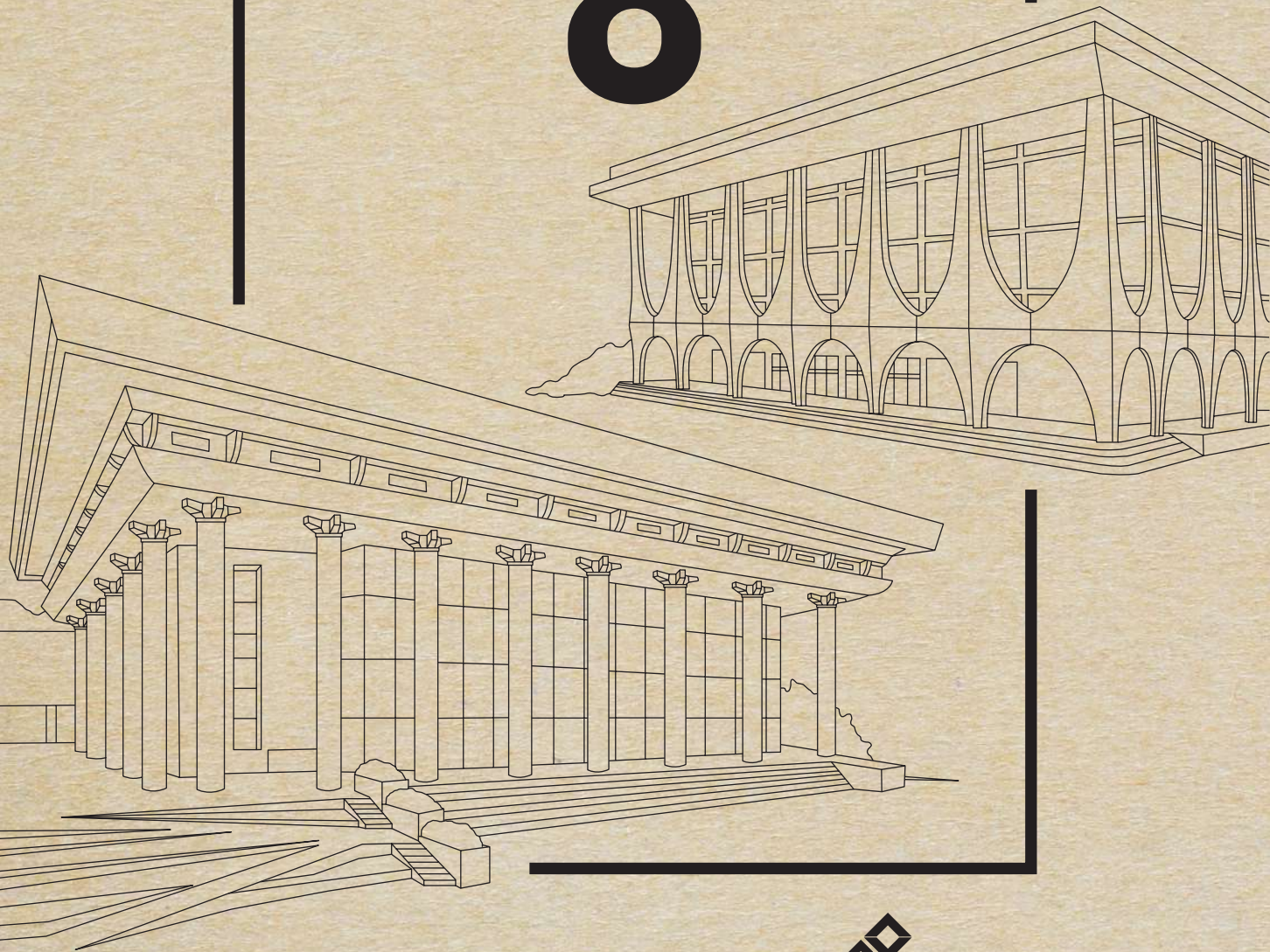
BSCC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2020 August

부산문화회관 · 부산시민회관 - 월간 공연 & 전시 일정표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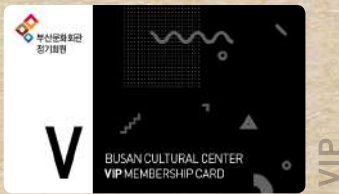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회원가입

-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116~7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 [예금주/(재)부산문화회관]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10일 이내)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1년)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음료 등 제공)



- 연회비** : 10만원
초대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 중에서 예약 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 지정된 기획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조기마감)
 ※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협창단, 무용단, 극단



- 연회비** : 5만원
초대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 연회비** : 3만원
초대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가입단체 공연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 가입단체 초대권 증정, 비가입단체는 예술단 공연 입장료의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음.



SUN	MON	TUE	WED
<p>부산시민회관 전시실</p> <p>제34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청소년꽃다발만들기대회 8월 1일 토요일 오전 10:00 1, 2층 전시실 (사)부산예술협회 631-1377</p> <p>방탄소년단 지민 팬클럽 사진전 8월 7일(금)-8월 8일(토) 1, 2층 전시실 고현진 010-3892-0126</p> <p>(사)부산미술협회 수채화분과전 8월 9일(일)-8월 16일(일) 1, 2층 전시실 (사)부산미술협회 수채화분과 010-8549-3939</p>			
2	3	4	5
		<p>WORLD BALLET GRAND PRIX-KOREA 18:00 한국발레재단(02-396-5188)</p>	
9	10	11	12
<p>동백대상국제음악콩쿠르 동백엔터테인먼트(201-0222)</p>		<p>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클래식은 내친구' 15:30, 19:30 전석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부산시립국악원악단 시원한 콘서트' 20:00 1만원·5천원/부산시립</p>
16	17	18	19
<p>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제14회 정기연주회 17:00 초대 광남유나이티드오케스트라(010-3860-6646)</p> <p>2020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II '도전 조이 오브스트링스의 The Color of Classics' 17: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0 현대무용단 자유 정기공연 20:00 2만원·1만원/현대무용단 자유(010-8541-3428)</p>		
23	24	25	26
<p>G. Verdi 'La Traviata' 17:00 맨즈하모니(010-2752-9923)</p> <p>경향음악콩쿠르 09:00 경향아트(462-7071)</p>		<p>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자화상의 비밀' 19:30 두손클래식엔터테인먼트(02-766-7623)</p> <p>2020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V '믿음 소프라노 박은주와 카운터테너 김대경의 엔틱에서 모던까지' 19:3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데뷔 콘서트' 19:30 무료/(사)인코리아심포니</p>
30	31		
<p>2020 창작연희The늘 정기공연 '운사' 초대/창작연희The늘 010-7153-5501</p>	<p>UKO 오케스트라 특별음악회 19:30 UKO(988-3087)</p>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ED	THU	FRI	SAT
			1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여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 15:00</p> <p>소 4만원 3만원 2만원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5	6	7	8
	<p>◆ WORLD BALLET GRAND PRIX-KOREA 13:00</p> <p>대 한국발레제단(02-396-5188)</p>		<p>◆ 동백대상국제음악콩쿠르</p> <p>소 동백엔터테인먼트(201-0222)</p>
2	13	14	15
<p>◆ 특별연주회 '팔방수 같이'</p> <p>국악관현악단(607-3124)</p>	<p>소프라노 서유희 독창회 19:30</p> <p>첼름 초대/서유희(010-3267-8182)</p>	<p>◆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위로' 19:30</p> <p>중 전석 2천원</p> <p>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3118)</p>	<p>◆ 2020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I '생명_부산시향 역대 악장들이 선사하는 4인 4색 4계 선율 속으로' 17:00</p> <p>중 전석 2만원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광복절 경축행사 10:00</p> <p>대 부산광역시(888-1926)</p>
9	20	21	22
	<p>◆ 부산시립무용단 2020 안무가양성프로젝트 '몸으로 쓰는 시' 19:30</p> <p>중 전석 5천원 / 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p>◆ 2020 자원봉사 이그나이트×부산 19:00</p> <p>소 (사)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864-1356)</p>	<p>◆ 2020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III '행복_시그너처 콘서트 첫 번째 국내 최정상 음악가들의 실내악연주회' 19:30</p> <p>중 전석 2만원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2020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IV '용기_힐링 콘서트 : 우리를 위한 특별한 콘서트' 17:00</p> <p>중 전석 2만원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 시민을 위한 제6회 부산국악축제 I '비손-치유를 소망하다' 19:00</p> <p>대 초대 / (사)부산국악협회(644-5211)</p>
6	27	28	29
<p>◆ 특별연주회 '신인 연주자'</p> <p>피니오케스트라(626-8081)</p>	<p>◆ 바리톤 이광근 초청 독창회 19:30</p> <p>중 전석 2만원 / 부산문화(1600-1803)</p> <p>2020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VI '낭만_살롱콘서트 : 한여름 밤, 쇼팽을 만나다' 19:30</p> <p>첼름 전석 2만원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국립현대무용단 '스윙' 19:30</p> <p>대 5만원 3만원 2만원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재)부산문화회관 마티네 콘서트_플루티스트 필립 오펜트 11:00</p> <p>중 전석 1만원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0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VII '열정_대학살내악축제' 19:30</p> <p>첼름 전석 2만원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부산시민회관 뮤지컬 명작극장 '캣츠' 19:00</p> <p>소 무료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2020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VIII '희망_시그너처 콘서트 두 번째 영화가 사랑한 클래식, 클래식 사랑한 뮤지컬' 17:00</p> <p>중 전석 2만원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코리아 음악콩쿠르 09:00</p> <p>소 오명근(010-2548-8038)</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BNK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2020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2020 Busan Chamber Festival

2020. 8. 15^토~29^토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www.bscc.or.kr

관람료 할인 안내

- 8개 공연 동시예매 40%, 4개 공연 동시예매 30%, 2개 공연 동시예매 20%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후원회원, 문화예술인패스 소지자, 문화누리카드 본인 결제시 20%
- 초·중·고·대학생 본인, 장애인(동반 1인), 국가유공자 본인, 의사자/의사상자 본인 및 가족 50%

※ 티켓 수령시 증빙카드 확인, 증빙카드 미지참 시 현장 차액 지불

※ 본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좌석제'로 진행

음악, 치유를 위한 8개의 레시피

생명·도전·행복·용기·믿음·낭만·열정·희망을 전하다

화려한 라인업과 풍성한 레퍼토리로 정통 실내악의 감동을 선사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2020년 무대가 8월 15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홀인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을 기념해 지난 2017년부터 개최되어온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은 매년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이 참여하여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실내악의 향연을 펼쳐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을 위해 '음악, 치유를 위한 8가지 레시피(생명·도전·행복·용기·믿음·낭만·열정·희망)'라는 주제로 음악을 통한 힐링의 무대를 선사한다.

8월 15일, 그 화려한 축제의 막을 여는 개막공연의 키워드는 '생명(Life)'. 지휘자 박성완이 지휘하는 BMF 챔버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김복수, 신상준, 김동욱과 현악장으로 있는 임홍균이 한 무대에 선다. 김복수는 미국 콜럼버스 심포니 종신악장, KBS교향악단 제1악장을 역임하고 현재 코리아나 챔버뮤직 소사이어티 대표로, 신상준은 울산, 대구, 서울시립교향악단 악장 및 인제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경북도립교향



악단 및 UKO 악장, 계명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김동욱은 동아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부산챔버뮤직 소사이어티 리더,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일본 효고공연 예술센터(Hyogo Performing Arts Center)오케스트라 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로 있는 임홍균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을 맡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4인 4층 4계 선율 속으로'로 라는 타이틀로, 4명의 연주자가 비발디 '사계'를 악장별로 들려주며, '사계'와 더불어 비발디의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꼽히는 '조화의 영감'을 4명의 연주자가 함께 연주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8월 16일에는 '도전(Challenge)'이라는 키워드로 바로크에서 고전, 낭만,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레퍼토리로 사랑받고 있는 조이오브스트링스(Joy Of Strings)의 무대가 마련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가 이끄는 조이오브스트링스는 지난 1997년 창단 후 다양한 기획공연과 정기공연, 초청공연을 통해 뛰어난 음악적 기량과 깊이 있는 음악으로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해왔다. 'The Color of Classics'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K.136', 베토벤 '로망스 작품 50', 피아졸라 '탱고 발레', 차이콥스키 '세레나데 작품 48'를 들려준다.

특히 올해 챔버페스티벌에서는 국내 최정상급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진다. 바로 '시그니처 콘서트'로 8월 21일 공연과 29일 폐막공연을 통해 두차례 실내악의 향연을 펼친다. 우선 21일에는 '행복(Happiness)'이라는 키워드로 바이올리니스트 테니스 김, 임홍균, 김영준, 조혜운, 비올리스트 김상진, 배은진, 황여진, 첼리스트 김민지, 이명진, 김민승이 출연해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브람스 '현악6중주 제2번 작품 36', 멘델스존 '현악8중주 작품 20'을 들려준다. 테니스 김은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서울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하고 현재 미국 퍼시픽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김영준은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제1바이올린 수석으로, 조혜운은 조이오브스트링스 수석단원, 부산챔버뮤직소사이어티, 클라라트리오 단원으로, 김상진은 서울챔버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지휘자, 연세대

학교 교수로, 배은진은 대구MBC교향악단. WOS비르투오 소챔버 수석으로, 황여진은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올라 수석으로, 김민지는 서울대학교 교수이자 덕수궁 석조전 음악회 감독, 첼리스트 첼로 앙상블 수석으로, 이명진은 동아대학교 교수로, 김민승은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8월 22일 열리는 '힐링 콘서트'에서는 '용기(Brave)'라는 테마로,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 한동대학교 교수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된다. 지난 2003년 KBS '인간극장'에 출연하여 당시 전 국민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던 이지선 교수는 교통사고로 인한 30번이 넘는 고통스런 수술과 재활치료를 이겨내고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며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 출신의 젊고 열정있는 연주자들로 결성된 앙상블 숨을 비롯해 부산음악협회 영아티스트로 선정된 피아니스트 김대영, 피아노트리오의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트리오 피아체,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경성대학교 교수로 있는 비올리스트 가영, 국내 유일의 유럽과 정통 반도네온 연주자 진선과 피아니스트 황안나, 경쾌한 한국적 재즈를 들려주고 있는 이병주밴드가 출연, 슈베르트 '죽음과 소녀', 스페인 작곡가 마누엘 데 파야 '베틀카 환상곡', 피아졸라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등 클래식에서부터 재즈, 영화음악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 앙상블 숨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 악기 제작자 김민성이 직접 제작한 악기로 연주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믿음(Faith)'이라는 키워드로 진행되는 25일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박은주와 카운터테너 김대경이 함께하는 '엔틱부터 모던까지'가 펼쳐진다.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박은주는 2003년 노트라인 베스트 팔렌 주 최고의 소프라노, 2009년 브레멘, 함부르크 주 최고의 소프라노, 2010년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의 '올해의 Discovery'로 선정되는 가 하면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현대오페라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아르츠컴퍼니 PAN 음악감독으로 있는 카운터테너 김대경은 독일 뷔르츠부르크 BachKantateClub 단원을 역임했으며 그동안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1부에서는 강효정(바로크첼로, 비올라 다 감바, 이승민(첼발로)의 고악기 반주로 들려주는 북스테후데, 칼라다, 헨델 등 바로크시대 작곡가들의 곡에 이어 2부에서는 피아니스트 전해란, 바이올리니스트 김동욱, 비올리스트 최영식의 반주로 우리 가곡 ‘연’, ‘이화우’ 및 브람스 ‘2개의 노래 작품 91’,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4개의 가곡 작품 27’을 들려준다.

8월 27일과 28일에는 ‘낭만’과 ‘열정’이라는 테마로 살롱콘서트와 대학실내악축제가 펼쳐진다. 우선 27일 살롱콘서트 ‘한여름 밤, 쇼팽을 만나다’에서는 앙상블 데어토니카, 피아니스트 황성훈, KNN 필 챔버 앙상블이 ‘피아노를 위한 관현악곡’으로 평가받는 쇼팽의 ‘피아노협주곡 제1번’을 비롯해 로시니 ‘현악소나타 제2번’, 훔멜 ‘피아노5중주 작품 87’를 들려준다. 부산 관객과 첫 만남을 갖는 앙상블 데어토니카는 국립제주대학교 교수인 심희정을 예술감독으로 제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문연주자와 예술기획자들로 구성된 실내악팀으로, 그동안 기존에 잘 알려진 실내악 명곡 외에도 숨어있는 레파토리의 발굴에 힘써오면서 실내악의 지평을 넓혀오고 있다. 이어 28일에는 경성대학교(지휘/임병원), 동아대학교(지휘/이명진), 동의대학교(지휘/윤상운), 부산대학교(지휘/김진연) 등 부산 지역 4개 대학 음악과 학생들이 지역 클래식계의 미래를 보여주는 ‘부산의 future & culture’가 펼쳐진다.

보름간의 화려했던 일정을 마무리하는 폐막공연에서는 8월 29일 ‘희망(Hope)’이라는 키워드로 두 번째 시그니처 콘서트가 펼쳐진다. ‘영화가 사랑한 클래식, 클래식이 사랑한 뮤지컬’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제주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정인혁이 지휘하는 BMF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클라리네티스트 장재혁, 비올리스트 최영식이 출연, 영화 ‘플래툰’, ‘대부 3’, ‘시네마천국’, ‘라라랜드’, ‘번지점



프를 하다', '과속스캔들', 뮤지컬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등 영화, 뮤지컬에 삽입된 클래식 명곡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는 하노버 요아힘 국제콩쿠르 우승, 파가니니 국제콩쿠르 1위 없는 2위 등 유수 국제콩쿠르를 석권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다. 클라리네티스트 장재혁은 부산시립교

향악단 수석으로, 비올리스트 최영식은 경북도립교향악단 수석으로 있으며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이번 2020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은 초등학교 이상 입장 가능하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객석은 한 자리씩 띄워 앉는 '거리두기 좌석제'로 운영된다.

2020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일정 및 출연

생명(Life)

부산시향 역대 악장들이 선사하는
4인 4색 4계 선율 속으로

지휘 박성완
연주 BMF 챔버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김복수, 신상준, 김동욱, 임흥균

2020. 8. 15^(토)

오후 5:00 중극장



도전(Challenge)

조이오브스트링스의 The Color of Classics : 컬러 심리로 보는 클래식

연주 조이오브스트링스(예술감독/이성주)
해설 이상민(비올리스트)

2020. 8. 16^(일)

오후 5:00 챔버홀



행복(Happiness)

시그니처 콘서트 첫 번째
국내 최정상 음악가들의 실내악 연주회

바이올린 데니스 김, 임홍균, 김영준, 조혜운
비올라 김상진, 배은진, 황여진
첼로 김민지, 이명진, 김민승

2020. 8. 21^금

오후 7:30 중극장



2020. 8. 22^일

오후 5:00 중극장



용기(Brave)

힐링콘서트 '우리를 위한 특별한 콘서트'

사회 이지선(에세이 '지선아 사랑해' 저자)
악기제작 김민성

연주 앙상블 슅

바이올린 조은비, 심신지 / 비올라 윤솔샘
첼로 김하늘 / 피아노 김대영

트리오 피아체

바이올린 조무종 / 첼로 정윤혜 / 피아노 박정희
비올라 가영 / 반도네온 진선 / 피아노 황안나
이병주 밴드

믿음(Faith)

소프라노 박은주와 카운터테너 김대경의 엔틱부터 모던까지

소프라노 박은주
카운터테너 김대경
바로크첼로, 비올라 다 김바 강효정 / 첼발로 이승민
피아노 전해란 / 바이올린 김동욱 / 비올라 최영식

2020. 8. 25^화

오후 7:30 챔버홀



낭만(Romance)

살롱콘서트 '한여름 밤, 쇼팽을 만나다'

2020. 8. 27^(목)

오후 7:30 챔버홀

앙상블 데어토니카

바이올린 장선경, 한효, 김수영 / 첼로 예지영
더블베이스 신인선 / 피아노 심희정, 황성훈

KNN 필 챔버 앙상블

바이올린 양경아, 박완서 / 비올라 유정주
첼로 이예성 / 더블베이스 박성진



열정(Passion)

대학실내악축제 '부산의 future & culture'

출연 경성대학교(지휘/임병원)
동아대학교(지휘/이명진)
동의대학교(지휘/윤상운)
부산대학교(지휘/김진연)



2020. 8. 28^(토)

오후 7:30 챔버홀

생명(Life)

시그니처 콘서트 두 번째

영화가 사랑한 클래식, 클래식이 사랑한 뮤지컬

지휘 정인혁
연주 BMF 오케스트라
협연 김다미(바이올린), 장재혁(클라리넷)
최영식(비올라)

2020. 8. 29^(토)

오후 5:00 중극장



문화예술이 살아 움직이는 일상의 현장을 그리워하며...

—
문화유목민 정두환
음악평론가, 본지 편집위원

“자, 동무들이여, 동물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해 봅시다. ...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자연의 질서일까요?”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책 <동물농장(Animal Farm)>에 나오는 글귀다. 필자는 지난 코로나19 사태 이후 생각과 상상의 날개를 펼쳐가면서 책을 다시 읽었다.

2002년 온 나라가 월드컵의 열기에 모두가 흥분해 있을 때 전국적으로 가축 16여만 마리가 도살당했다. 구제역(口蹄疫)이 원인이었다. 이 구제역은 이후 2010년, 2011년에도 터져 350여만 마리의 소와 돼지가 살처분 되었다. 어디 그뿐인가, 2016년 조류인플루엔자(H5N형 A바이러스)로 1,500여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었다. 살처분되는 전 과정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가축들이 생매장 되는 과정을 TV 뉴스를 통하여 온 국민은 지켜보았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동물들과 몸시도 힘들어하던 현장 사람들의 모습...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이며, 죽어야 한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인가? 단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살처분만이 온당한 것이었을까? 이번 코로나19처럼 세계적 대유행과 같은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외출자제가 온당한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재까지 인간은 상상하였던 대부분의 것을 현실화시킨 힘을 가지고 있다. (다른 행성을 갈 것이라는 상상이 현실이 된 것을 보라.) 상상이라는 가상의 힘이



인간에게 없었다면 지금 인간들이 세상을 지배하듯이 누리는 삶이 가능했을까? 자연의 제약처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상상의 힘에서 나왔을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이왕 하는 상상이라면 모두를 위한 행복한 상상은 어떤 것일까?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시금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의 글 한 구절을 인용하여 “우리 인간의 삶의 본질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자연의 질서”인지를 다같이 생각해보는 기획의 장이 되면 어떨까!

‘인간의 삶의 본질’, 이것은 혼자라는 단수가 아닌 복수로 ‘우리’라는 삶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인간의 삶은 공동의 삶이다. 굳이 인간을 자연의 중심에 놓는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즉 다양한 생명체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의 현상이 인간 삶의 현상이다. 이번 코로나19도 차분히 따져보면 인간들의 이기심에서 비롯되었을 확률이 아주 높다. 자연 생태계를 서로 공존의 장으로 인식하지 않고 인간 중심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 중심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삶을 다시는 살 수 없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자 필자는 삶을 다시금 살펴보게 되었다. 보다 풍족하기를 원했던 나의 삶이 자연과 공존하는 삶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결국은 많은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인식하게 된 것이다. 과소유보다 합리적 소유로 자연을 덜 해치는 생활 실천이 우선된다면 조금이나마 공존하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넘침은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선인들의 교훈이 있었음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욕심을 부린다면 문화예술분야가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현실은 문화예술, 그 중에서도 무대공연 분야는 직격탄을 맞았다. 함께 어울려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보니 모일 수밖에 없으나 이 모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현 상황 속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에 공연장은 조금씩 활기를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각해보면 공연장은 안전한 공간이다. 첫째, 공연장 측에서는 꼼꼼한 소독과 객석 띄어 앉기를 통한 거리 두기와 관객들의 발

열체크, 신분을 철저히 검사한다. 둘째, 공연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관객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여 무대를 바라보며 관람한다. 어디 그 뿐인가, 공연의 활성화는 공연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여건 즉, 음향과 조명, 홍보 및 기획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변 환경들이 더불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관객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현장은 서로가 힘들었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와 위안을 주고 받음으로서 어려운 사회적 여건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으로 전환된다.

예술이 갖는 힘은 그 내용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결과적으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현재보다 조금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 만들어내는 예술이기에 결과적으로 긍정의 힘을 갖는 것이다. 지난 주 코로나19 이전의 공연장 영상을 보았다. 수 많은 관객들이 한 여름밤 음악회를 관람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행복해하는 표정, 음악회를 통해 위로받는 모습, 이러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살아 움직이는 현상이 그림다. 조지 오웰의 책 <동물농장>의 한 구절이다.

“신사 여러분, 건배합시다. 동물농장의 번영을 위하여!”





시가 있는
산골 이야기 13

별



시인, 본지 편집위원장 **동길산**
✉ dgs1116@hanmail.net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멀어도

검은 비단에다 자수를 뜬다
큰 별 크게 수놓고
밝은 별 밝게 놓습니다
별과 별 사이 띄우기도 하고
붙이기도 합니다
긴 실선은 별뚝입니다
나서기를 꺼리는 별은
산 너머에 감춥니다
대신에 형광실을 놓아
산이 대낮처럼 환합니다

동길산 詩 ‘별’

66

다 다른 별에서 별 하나 찾는다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멀어도
당신 떠올리면 찾아지는 그 별

99

오늘은 그믐밤. 달이 뜨는 대신 별이 총총하다. 별은 그렇다. 달빛이 환하면 나서기를 꺼린다.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숨는다. 심성이 어려서다. 그래서 달빛 환한 밤에는 별이 드문드문 보이거나 통 보이지 않는다.

달도 그걸 안다. 그걸 알아 스스로 빛을 조절한다. 하루하루 빛의 밝기를 낮추어 가다가 그믐밤이면 밤하늘 모든 자리를 별에게 내어준다. 달이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그믐밤은 달과 별이 함께하는 공유의 밤이다.

별 총총 그믐밤. 별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기뻐할까, 미안해할까. 심성이 어려서 달에게 미안해하는 별이 훨씬 많지 싶다. 달은 그게 또 미안해서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밤하늘 모든 자리를 선선히 내어준다.

마당에 나선다. 별이 짓는 표정을 제대로 살피려고 집 안팎 내등과 외등을 죄다 끈다. 달빛 환할 때는 보기 어렵던 별이 따로따로 빛나거나 끼리끼리 빛난다. 소멸하기 직전 유성은 별과 별을 이으며 존재감을 한껏 드러낸다.

별도 사람과 다르지 않다. 어떤 사람은 여름을 타고 어떤 사람은 겨울을 타듯 어떤 별은 여름을 타고 어떤 별은 겨울을 탄다. 여름을 타는 별은 겨울밤에만 나오고 겨울을 타는 별은 여름밤에만 나온다. 사람이 다 다르듯 별은 다 다르다.

다 다른 별에서 별 하나를 찾는다. 여름에도 보이고 겨울에도 보이는 그 별. 별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멀어도 당신을 떠올리면 언제든 어디서든 찾아지는 그 별. 가장 어두우면서 가장 환한 그믐밤이 깊어 간다.

당신 곁에 바짝 다가선 예술의 힘

SPACE UM

스페이스 움

박나무 자유기고가

카페이자 미술관이며,
공연장이면서도 학습관인 스페이스 움

100일을 쉬었다. 코로나 때문에 긴 잠복기에 들었던 스페이스 움이 다시 기지개를 켜며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긴 침묵은 말하고 노래하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한다. 일상에서 당연한 것처럼 누리던 어울림이 이젠 간절한 일이 되었다. “연주자들은 이 힘든 시기를 손가락 빨며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스페이스 움이라도 다시 일어서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조바심이 깊었어요” 김은숙 대표는 카페까지 문을 닫고 수입이 전무했던 시간들보다, 예술인들 걱정을 먼저 털어놓는다. 그에게는 어떤 책임감 같은 게 있는 걸까? “예술이란 것은 긴 시간 뼈를 깎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아름다움의 응어리같은 겁니다. 그걸 함께 나누는 게 나의 일이죠”

스페이스 움은 동래전화국에서 동래교차로 방향으로 100미터 정도 걸으면 나오는 100평 남짓한 공간인데 카페이자 미술관이며, 공연장이면서도 학습관이다. 커피와 차를 파는 카페인데, 매주 열리는 음악회가 퇴근길 직장인의 고단함을 달래준다. 작가들의 전시가 벽면을 풍성하게 채우고 있고, 마을활동가들이 또 함께 공부하는 곳이다. 세상의 어떤 100평이 이처럼 알뜰하고 살뜰하게 운영될 수 있을까? 17~18세기 프랑스의 문화용성을 견인한 살롱 문화가 스페이스 움에서 재현된다고 보아도 좋겠다.





대중에게 활짝 열린 스페이스 옴은 부산의 예술문화를 단단하게 다지는 전위부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교와 공연, 토론과 전시가 함께 어우러졌던 그 옛날 살롱이 궁중과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스페이스 옴은 대중에게 활짝 열린 곳이다. 입장에 제한도 없고, 전시는 무료관람. 공연은 다과 포함 만원, 가히 '만원의 행복'이다.

한 사람의 열정으로 시작된 공간이 10년을 버텼고, 올 가을이면 400회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공연이라는 게 공간만 열어 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은가? 상당한 수준의 연주자를 섭외해야 하고, 공연에 불편함이 없는 음향과 조명이 받쳐줘야겠고, 홍보가 되어야 하며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관객이 객석을 채워줘야 한다. 그런 일을 관공서나 회사가 아닌 한 사람이 400회를 해왔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실제로 눈 앞에 실현되고 있다. 특별한 힘이 있는걸까? “저는 그저 이 일이 참 좋습니다. 힘든데 펍 기쁜 이상한 경험, 이 공간을 운영하면서 계속 만나는 행복함이지요. 연주자와 관객들이 교감하는 걸 보는 건 어찌면 마약 같은 중독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는게 견디기 힘든...”. 그이가 중독에서 헤어나지 않는 한 스페이스 옴은 멈추지 않을 것 같다.

긴 잠복기를 거치면서 스페이스 옴은 오히려 여물었다. 쉬운 짐작이겠지만 이 공간의 공연이나 전시, 프로그램들이 ‘돈이 되는’ 일이 아니다. 관람료를 받아서 다과에 따른 실비를 제하고는 연주자에게 모두 간다. 그마저 적어서 손이 부끄럽다며 김 대표가 보태기 일쑤. 그래서 이 공간을 계속 운영할 수 있

을까에 대한 고민도 깊었고, 공연의 규모에 따라서 관람료를 2만원을 책정하기도 했다. 7월에 다시 공연을 재개하면서는 외려 만원으로 마음을 굳혔다. 많은 분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 대신 단단한 멤버십으로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인데, 월 3만원의 후원회비를 내는 회원에게 월마다 적게는 4회, 많게는 7회까지 열리는 모든 공연에 무료초대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열개다. 애호가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이면서 스페이스 옴의 입장에서 든든한 뒷배를 확보하는 일. 우선 100명이 목표라니, 서둘러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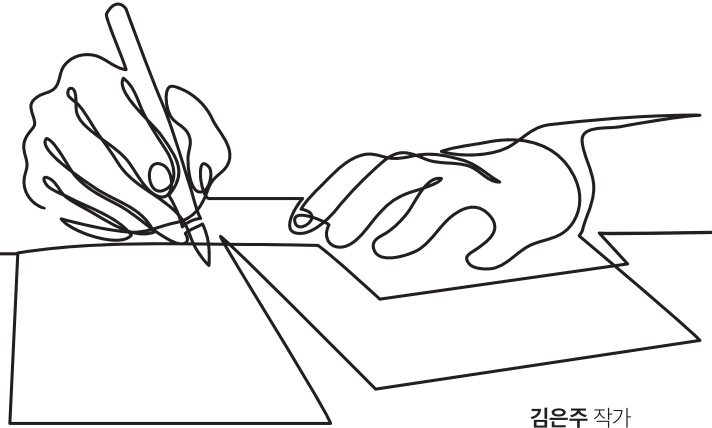
우리 부산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이 정찬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이라면 스페이스 옴은 경양식집쯤 된다고 하면 실례일까? 공연이나 전시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채워가는 매력적인 장르임을 조금씩 느껴가며 더 깊은 문화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곳. 스페이스 옴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웃고 즐기고 느끼면서 부산의 예술문화를 단단하게 다지는 전위부대의 역할을 잘 수행했으면 한다. 다만 개인의 역량과 희생만을 갈아 넣는 게 아니라 공공의 방식이 함께 스미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 만 10년을 눈앞에 둔 스페이스 옴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도 모색해볼 일일 테니, 멤버십을 중심으로 잘 논의하면 해답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예술, 스페이스 옴이 추구하는 가치가 지역사회에서 잘 움트길 바란다.

문의 : 스페이스 옴(557-3369, www.spaceum.kr)



나의 드로잉 Drawing에서 그로잉 Growing으로

나는 드로잉(그림 그리기)을
통해 성장했다



김은주 작가

34세, 45세, 58세, 62세, 매주 월요일 부산문화회관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수업에 모인 수강생들의 나이는 매우 다양하다. 그들이 살아 온 배경들도 모두 다르다. 이곳에 그들을 모이게 한 것은 그림에 대한 관심이다.

첫 수업에서 수강생들로부터 “이게 드로잉입니까?”, “명암내기는 안합니까?”, “나는 기초가 없는데 이래 그려도 됩니까?” 등 불평 섞인 이야기를 간혹 듣기도 했다. 연필 선긋기, 명암훈련의 반복연습으로 이루어진 수동적인 교육방식의 일반적인 드로잉 수업방식과 나의 수업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드로잉 수업에서 그러하듯이 선생님이 그리는 방식과 본보기가 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그대로 따라 그리도록 하는 과정의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모두가 비슷한 그림을 그려내는 진풍경을 자아내도록 한다.

내가 알고 있는 ‘드로잉’, 그림 그리기는 그렇지 않다

자신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림 그리기는 외부에서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고 그것을 알차게 활용하는 것이다.

이것의 첫 번째 방법으로 자신의 관찰력을 최대한 끌어 올려야 한다. 우리는 실물과 가깝게 그려내는 사람을 보고 흔히 ‘손재주가 좋다’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손재주가 아니고 관찰력이 좋은 것이다. 누구보다도 ‘많이 본다’는 것이다. 아주 쉬워 보이지만 사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미 ‘생각’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눈앞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힘들어 한다. 생각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관찰하는 눈으로 대상을 만나야 한다. 그래야 누구의 방식으로 보는 것이 아닌 나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그릴 수 있다. 인간이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그 눈으로 말이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해 보아야 한다. 이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 두려움을 버리고 여러 가



수강생 김현숙 작

지 시도를 해본 뒤 비로소 자신만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림 그리기, 드로잉은 은밀하게 보면 ‘당신은 누구시죠?’하는 질문에 답하는 행위이다. 자신과 맞는 옷을 찾듯이 여러 시도 속에서 자신의 표현을 찾고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행위가 바로 ‘드로잉 그로잉’이다.

수업을 통해 만난 수강생들의 성장은 무척 아름다웠다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평범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눈으로 주변을 보고 스스로 그리기 시작했고 선택한 재료와는 연애하듯이 사랑하기도 하고 때론 다투기도 하면서 재료가 점점 그림 속으로 들어갈수록 자신이 선택한 물질을 자신의 방식으로 알아가며 그려갔다.

그림 그리기는 누군가의 방식을 따라 그리는 수동적인 형식의 세상이 아니다. 지독할 정도로 스스로 해내야 하는 창조의 세상이다. 드로잉은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행위이며 이 행위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의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다. 세상에 같은 그림은 없다. 지금 그리는 이 그림이 하나뿐인 내 그림이어야 한다. 우리 수업에는 질문에 자신의 답을 하듯 그림을 그린다. 그림이 이름을 갖기 시작한다. 그림을 보면 누가 그렸는지 알 수 있다. 살아오면서 듣지 못했던 질문 - '누구세요?'. 삶의 역할에 답이 나와 버린 자신에게 이제 다시 한 번 되묻는다. '누구시냐고'.

2019년 6월 10일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응용반 (참여수강생 : 김갑상, 김현숙, 노승배, 배순덕, 유선주, 윤정은, 윤정림, 윤지경, 정미주, 주미경, 차춘희)에서 스스로 기획해서 전시를 했다. '내뺨'이라는 주제의 전시였다



수업 현장사진



<코로나 시대> 수업 중 복도 전시(2020년 7월)



<내뺨> 전시 토론현장



윤지경 작 'LIVE 5'(종이 위에 아크릴, 150x1000cm, 2019년)

왜 내장인가? 존재하고 있으나 존재 자체조차 잊혀진, 한 몸이 되어버린 내장! 어쩌면 우리가 가졌던 그림에 대한 열망도 이렇게 무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우리들의 눈과 손을 연결시켜준 김은주 선생님 덕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대로 해보라'는 환경에 놓여서 자유와 창작의 세계에 푹 빠졌었다. 이런 미술수업은 낯설고 신기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도 온전치도 않다. 그러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감히 말해본다. 내장(內場)전은 제대로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살아보겠다는 시작이다. 언젠가 이 동물원이 아닌 야생에 나가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시도를 마음을 다해 준비해 준 우리 반 사랑합니다.

- '내뺨'전을 준비하며 수강생 윤정은 노트중

이렇듯 우리는 스스로 드로잉하며 성장한다. 지금 처해 있는 모습에 갇히지 않고 조금씩 기지개를 펴며 나아간다.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수업 시간에 그들의 작은 성장이 참 아름답고 눈부시다. 언젠가 저들 속에서 모세스 할머니와 호레스 피핀이 나올지 누가 아는가! 나는 꿈꾼다. 그럴 수 있기를...

오는 9월 3일 부산 화인갤러리에서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반 윤지경 수강생이 드디어 첫 개인전을 한다. 나는 그녀의 용기 있는 출발을 응원한다. 그리고 자신이 펼쳐진 그 곳에서 스스로를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Invitation

가온아트홀	1600-1601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동래문화회관	550-6611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전용극장	623-0678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6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950-6500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2200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엑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소극장	070-4211-8879
한결아트홀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760-1177
SM아트홀	1600-1602

to the Arts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클래식은 내친구



● **매년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선물 '부산시향의 클래식은 내친구'가 8월 1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대표적인 간판 프로그램인 '클래식은 내친구'는 지난 1995년 청소년 해설음악회로 출발한 후 매년 '클래식 음악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청소년들의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 무대에서는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미리 신청받은 '청소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들려주는 한편, '제 76회 청소년협주곡의 밤' 협연자 선발오디션에서 1위를 차지한 경성대학교 1학년 조예림의 플루트 협연도 펼쳐진다. 부산음악협회 전국학생음악콩쿠르 1위, 글로벌 전국음악콩쿠르 금상, 경성대학교 음악콩쿠르 1위, 창신대학교 콩쿠르 전체대상을 수상한 조예림은 이번 무대에서 플루트의 매력을 가장 잘 살려낸 명작으로 평가받는 모차르트 '플루트협주곡 제1번' 중 1악장과 3악장을 들려준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청소년들의 음악교육을 위해 쓰여진 브리튼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을 부산시립극단 배우 서보기의

재치있는 입담과 해설로 들려준다. '엘가 이후 영국의 희망'이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뛰어난 음악가였던 브리튼은 교향곡, 협주곡, 오페라뿐만 아니라 영화, 방송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작곡했다.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은 지난 1947년 영국 정부가 청소년들의 교육용으로 제작한 관현악 해설 영화의 음악 작곡을 브리튼에게 의뢰하면서 탄생된 곡으로, 오늘날에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반 연주 무대에서도 자주 연주되고 있다. 영국의 선배 작곡가 퍼셀의 곡을 주제선율로 구성하여 '퍼셀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라는 부제가 붙었으며, 관현악에 있어 각 악기와 그 특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악을 연주하는 사이 지휘자 혹은 해설자가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을 하나씩 소개함으로써 관객들에게 관현악의 이해를 돕는 한편, 관현악곡의 매력과 즐거움을 전해주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현장중계의 형식을 빌어 스크린영상을 통해 관객들에게 보다 생생한 연주장면을 제공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는 한편,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제공한다.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최수열과 부지휘자 이민형의 지휘로 진행된다.

- 일 시 8월 11일 화요일 오후 3:30,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Preview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흥겨운 국악선율로 날려버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2020년 무대가 8월 1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매년 새로운 시도, 새로운 만남으로 우리음악의 멋과 아름다움을 선사하면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 잡은 '팔빙수처럼 시원한 콘서트'는 특히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흥겨운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김종욱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진주삼천포농악 전수 조교로 있는 조갑용과 국경과 음악, 세대 간의 경계를 허물며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설장구 연주가 겸 작곡가 민영치, 부산 가야금연주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피리 부수석이자 무형문화재 중요제례악 및 피리·대취타 이수자, 진형준이 출연, 신명남 치는 국악창작곡으로 무더위를 씻어준다.

1부 무대 첫 곡으로는 이준호 편곡 '성주굿을 위한 국악관현악'을 들려준다. 영남지역에서 주로 정월대보름에 불리던 '성주굿'은 집을 지은 후 복을 부르고 액을 쫓는 내용으로 원래는 팽과리, 장구, 북, 징과 같은 타악 반주에 맞추어 노래했으나 이번 무대

에서는 관현악으로 새롭게 편곡하여 조갑용의 소리로 들려준다. 현재 두레예술단 음악감독으로 있는 조갑용은 국립국악원 수석, 경기도립국악단 악장, 수원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이어서는 위촉 초연곡인 '국악관현악을 위한 부산환상곡'과 재일교포 작곡가 양방언이 작곡한 퓨전음악 '프론티어', 'Prince of Jeju'를 들려준다. 작곡가 박영란의 '부산환상곡'은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 '부산'의 지나온 과거와 또다른 미래로의 힘찬 도약을 국악관현악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2부에서는 국악관현악과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 '침향무'(황병기 곡)를 부산가야금연주단 김지연, 문정원, 김소정, 유승희의 연주로, 피리와 국악오케스트라를 위한 아침광안 '어명 그리고 일출'(이기병 곡)은 진형준의 연주로 들려준다. '침향무'는 불교음악인 범패의 음계를 바탕으로 동양과 서양의 공통적 원시 정서를 표현한 작품으로 본래는 독주곡이었으나 협주곡으로 작, 편곡하여 보다 풍부한 선율로 관객과 만난다. 이번 공연의 마지막 곡은 설장구협주곡 '오뎅세이'(민영치 곡)으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하풍수를 그리워하며 작곡한 곡이다. 협연자 민영치는 그동안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클래식 및 대중음악과 국악의 접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일 시 8월 12일 수요일 오후 8: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입장료 1층 1만원, 2층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Preview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75주년 광복절 기념 및 코로나 극복 기원 프로젝트 Consolation(위로)



지휘 이명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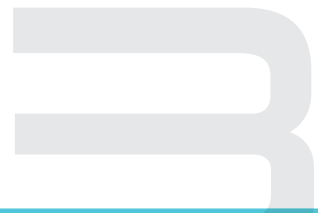
- **코로나19에 따른 공연장 휴관으로 그동안 무대에 서지 못했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8월 14일 특별연주회 'Consolation(위로)'를 통해 올해 관객과 첫 만남을 갖는다.**

제75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광복절 기념 및 코로나 극복 기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특히 계속되는 코로나19에 따른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힐링의 무대로, 수석지휘자 이명근의 지휘로 모차르트 최후의 작품인 '레퀴엠'을 비롯해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우선 첫 곡으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모차르트가 죽음을 앞두고 끝내 완성하지 못했던,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는 '레퀴엠'을 들려준다. '레퀴엠'은 미완성이었던 작품을 모차르트의 제자였던 쥐스마이어가 완성하면서 유난히 판본이 많은 작품으로 꼽히는데, 쥐스마이어 외에도 다른 작곡가의 판본이 출판되는가 하면, 모차르트가 남긴 스케치만으로 보정된 악보도 주목받으면서 지금도 많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 레퀴엠의 장엄한 분위기를 암시하는 '인트로이투스(Introitus: requiem)'를 시작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

기소서'라는 가사에 붙여진 장대한 음악 '키리에(Kyrie)', '진노의 날(Dies irae)', 그리고 제자 쥐스마이어에 의해 완성된, 전체 악곡 중에서 가장 애절하며 서정적인 '눈물의 날(Lacrimosa)'을 들려준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클래식 명곡과 뮤지컬 넘버, 영화음악 등 우리에게 친숙한 선율로 음악을 통한 위로와 희망을 전한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으로 손꼽히는 비발디 '사계' 중 '여름'을 시작으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 '지금 이순간', '오페라의 유령' 중 'All I ask of You',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4번 중 4악장, 아리랑 랩소디, 그리고 영화 '산체스의 아이들' 테마곡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정주아의 태평소 협연으로 들려준다. 특히 재즈야티스트 척 맨지오니의 트럼펫 연주로 유명한 '산체스의 아이들'을 이번 무대에서는 역동적이면서도 폭발적인 태평소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 **일 시** 8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입장료** 전석 2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8

Preview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20 안무가양성프로젝트 **몸으로 쓰는 시**



안무 장태훈

안무 윤은하

안무 김미란

- 부산시립무용단이 매년 수준높은 안무가 양성을 위해 마련하는 안무가 양성 프로젝트인 ‘몸으로 쓰는 시’ 2020년 무대가 8월 20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몸으로 쓰는 시’는 지난 2016년 오랜 전통을 이어온 ‘한 여름밤의 춤 작품전’을 계승한 무대로, 자신만의 춤 언어와 몸짓으로 빚어낸 단원들의 참신한 작품 세계를 통해 부산의 여름을 빛내는 열정적인 창작 춤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삶의 활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넘치는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올해 2020년 무대에서는 부수석단원 장래훈의 ‘농(弄)·사무치다’를 비롯해 단원 윤은하의 ‘따 라 지’, 단원 김미란의 ‘얼룩무늬 저 여자’ 등 세 작품이 선보인다.

첫 무대인 ‘농(弄)·사무치다’는 전통음악의 현악기 연주에서 원래의 음 이외에 여러 가지 장식음을 내는 기법인 ‘농현(弄絃)’처럼 굴곡 있는 움직임에 스며드는 몸짓을 표현한 작품으로, 부산시립무용단 장래훈, 김수잔, 류가빈, 하현정의 춤사위로 만날 수 있다. 안무자 장래훈은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이수자로 전국무용경연대회 대상, 전통예술경연대회 특상을 수상했으며, 2015 춤추는 남자들 ‘살풀이’, 2017 창무국제예술제 ‘미알할멈’, 2018 한

국무용제전 ‘이세상도 한세상’, 2019 영남춤 100인전 ‘승무’, 전라도 천년의 춤 명무전 ‘지전춤’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어지는 무대는 38광땡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38따라지의 보잘것없는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카르멘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따 라 지’로, 부산시립무용단 윤은하, 강모세의 춤사위로 만날 수 있다. 안무자 윤은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승무 전수자로, 부산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천생연분’ 주역을 맡았으며, 주요작품으로 ‘門동열여라, 꽃아(2008년)’, ‘다른 길이 있다(2011년)’, ‘나다(2012년)’, ‘중독(2014년)’ 등이 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우리들 마음의 얼룩을 똑바로 바라보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얼룩무늬 저 여자’를 선보인다. 안무자 김미란은 무형문화재 학연화대합설무 이수자로, 부산시립무용단 정기공연 ‘길들여진 토끼’, ‘이쁜이 시집가는 날’ 등 주역으로 출연했으며, 주요 작품으로 ‘그리고 그들은 꽃에 수갑을 채웠다(2008년)’, ‘살다보니’, ‘나는 그의 효자손이었다(2013년)’, ‘it's real(2014년)’, ‘벌거벗은 임금님(2016년)’, ‘청색시대’, ‘그에게 가는 길(2019년)’ 등 다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김미란 외에 부산시립무용단 비상임단원을 역임한 이송희, 김주연, 그리고 무대미술 디자이너 황지선이 특별출연한다.

- 일 시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입장료 전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31~1

Preview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현대무용단 '스윙'



- **시대를 풍미한 스윙재즈 음악과 현대무용의 경쾌한 만남, 국립현대무용단의 '스윙'이 부산을 찾는다.**

지난 2018년 전석매진을 기록한 화제작 '스윙'은 국립현대무용단 안성수 전 예술감독이 안무, 연출을 맡은 작품으로, 스윙 음악이 품은 리듬과 에너지를 현대적 움직임으로 풀어내면서 국립현대무용단의 인기작으로 2018년 4월 초연 후 지금까지 전국 순회공연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스웨덴 재즈밴드 '젠틀맨 앤 갱스터즈'의 흥겨운 재즈음악과 함께 국립현대무용단의 리드미컬하고 경쾌한 춤이 펼쳐지면서 '한 편의 뮤지컬을 본 것 같은 무용 공연', '마치 할리우드 고전영화 속 재즈클럽에 온 것 같다' 등 다양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마치 신나는 스윙재즈 바에서 '잭앤질(Jack&Jill:남녀커플)' 경연 을 보고 있는 듯 하는 이번 무대는 '경쾌한 스윙 리듬에 맞춰 춤추는 무용수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안성수 안무가의 말처럼 뛰어난 테크닉과 섬세한 표현력을 가진 국립현대무용단의 열정 가득한 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스윙음악에 맞춰 군무와 듀엣을 넘나들며 화려하고 다채로운 춤을 보고 싶노라면 어느 순간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콘서트에 온 것처럼, 음악과 춤이 뽀

여내는 활기 넘치는 무대를 즐길 수 있다.

작품 속 재즈음악을 들려주는 '젠틀맨 앤 갱스터즈'는 정통 뉴올리언스 핫 재즈 스타일의 스윙음악을 들려주는 6인조 밴드로, '진정한 신사의 세련됨에 무자비한 잔인함이 더해진 대담한 캅패'라는 이름처럼 대담하면서도 세련된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Mack the Knife' 'Sing Sing Sing' 등 익숙한 스윙재즈의 고전에서부터 화려한 트럼본 솔로연주가 돋보이는 '류블라나 스윙(Ljubljana Swing)', 유머러스한 갱스터 스윙 스타일로 쓰인 '벅시(Bugsy)', 최근 공연에 새롭게 추가된 'Sunday' 등 '젠틀맨 앤 갱스터즈'의 자작곡까지 그들이 들려주는 연주에 관객들은 한순간 할리우드 고전영화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젠틀맨 앤 갱스터즈'는 초연부터 지난해까지는 라이브로 직접 연주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무대 출연은 하지 않는다.

지난 2010년 창단한 국내 유일의 국립 현대무용단체인 국립현대무용단은 춤을 통해 동시대의 역사와 사회, 일상에 대해 이야기 하며 지역과 세대를 아울러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한국적 컨템퍼러리 댄스를 제작하여 관객과 만나왔다.

- **일 시** 8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1번), www.bscc.or.kr

Preview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드라마틱 플루트_플루티스트 필립 윌트



-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대표적 브런치 콘서트인 (재)부산문화회관 마티네 콘서트 8월 무대가 8월 2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재)부산문화회관 마티네 콘서트는 그동안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깊이 있는 해설음악회로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는 SBS 간판 아나운서이자 클래식 애호가인 박찬민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여러 음악장르를 아우르는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2000년 SBS 공채 8기 아나운서로 입사하여 올해 20년차를 맞은 베테랑 아나운서인 박찬민은 TV 예능 프로그램인 '스타주니어쇼 붕어빵'에 세 딸과 함께 출연하여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현재는 SBS 대표 아침방송 프로그램인 '좋은아침'을 통해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8월 무대에서는 유럽과 한국을 무대로 클래식 한류의 전도사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플루티스트 필립 윌트가 관객들과 만난다. 하버드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뮌헨 음대에서 플루트를 전공한 스위스 출신의 필립 윌트는 지난 20여 년간 아시아, 유럽, 북미를 누리며 연주활동은 물론 교육자로서 후진양성에도 힘써왔다. KBS교향악단 수석 플루티스트이자 서울시립교향악

단 객원수석, 뮌헨 필하모닉, 뮌헨 챔버 오케스트라,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닉, 바이에른 주립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곤지암 뮤직페스티벌 음악감독, 스위스-한국 문화교류재단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활동하던 중 한국 음식에 매료되어 지난 2008년 한국으로 건너온 필립 윌트의 한국 사랑이 드라마로 이어지면서, 2018년에는 수 백 편의 한국 드라마 삽입곡 중 10여 곡을 그가 직접 선곡, 편곡하여 연주하는 '드라마틱 클래식'을 기획하기도 했다. 그가 재해석한 한국 드라마 OST를 들려주는 '드라마틱 클래식'에서는 인기 드라마 '하얀거탑', '태양의 후예', '도깨비' 등 우리 귀에 친숙한 드라마 주제곡을 연주하여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번 무대에서 필립 윌트는 한국반주협회(KCPA) 정회원, & duo 멤버, JUNGS DUO 멤버로 있으며 전문반주자 및 편곡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연효정과 함께 모차르트, 크라캠프, 타파넬, 모라치 등의 플루트 명곡을 비롯해 '드라마틱 클래식'을 통해 사랑받았던 드라마 '도깨비', '태양의 후예' OST를 들려준다.

- 일 시 8월 28일 금요일 오전 11: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Preview

2019 부산 신진 예술페스티벌 최우수작품 선정 가족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



● (재)부산문화회관이 지역 예술인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마련한 ‘2019 부산 신진 예술페스티벌’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가족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가 9월 3일부터 사흘간 부산 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새로운 시선, 차세대 예술’이라는 주제로 처음 열린 ‘부산 신진 예술페스티벌’은 지역의 잠재력 있는 신진예술인들의 공연예술 작품을 발굴, ‘메이드 인 부산’ 레퍼토리를 육성,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축제에서는 연극, 무용, 다원예술 등 총 36편의 응모작 중 8편을 선정해 무대에 올렸으며, 한국 전래동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극단 오오씨어터의 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가 신진작가의 초연작임에도 높은 완성도와 안정적인 추진이 돋보인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아 최우수작으로 결정됐다.

판소리 ‘수궁가’를 오늘날의 새로운 이야기로 풀어낸 창작 가족 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는 화려한 바닷속과 웅장한 육지를 오가는 별주부 자라와 토선생의 목숨 건 이야기가 배우들의 생생한 라이브와 무대를 가득 채운 안무 속에 펼쳐진다. 부산 앞바다에 사는 남해 용왕 광리왕은 사방 용왕들을 불러내어 3일 내

내 술파티를 열다 술병이 난다. 술병으로 만신창이가 된 광리왕 앞에 부르지도 않은 의원이 나타나 ‘토끼의 간’을 먹어야 낫는다며 속히 ‘토끼 간 빼돌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라 용왕을 재촉한다. 이 일로 대신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본 적도 없는 토끼를 잡으러 갈 영업사원을 선출하는데... 극단 오오씨어터 대표이자 연출가인 오영섭이 연출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이혁우, 김성열, 채민수, 이충환, 박규환, 서예은, 김아름, 정지수, 서보기, 김정민 등이 출연, 재미와 감동이 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의 젊은 예술인들로 결성된 극단 오오씨어터는 사라져가는 전화동화를 무대로 가지고 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창작극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문화에 소외된 지역관객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 외에도 무대의 벽을 허물고 다가가는 거리극, 탄탄한 테크닉을 통해 새로운 감동을 전하는 갈라쇼, 위로 받고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함이 담긴 일상현대극 등 젊고 감각적인 시선이 담긴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극단명인 ‘오오’는 작품을 통해 느끼는 감탄의 소리이자 무대를 통해 멀리 뻗어나가는 배우들의 소리, 세상에 대한 메시지를 크게 외치고픈 극단의 의지를 담은 이름이다.

- 일 시 9월 3일-4일 목-금요일 오전 10:30, 오후 1:30, 5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24개월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Preview

2020 제1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염원, 하늘에 닿다

8. 28^{FRI} - 9. 28^{MON}

부산문화회관, 국립부산국악원,
區 문화회관 외 부산 전역

문의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최정상의 클래식 음악축제 ‘2020 제1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가 8월 28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마루’는 ‘파도가 일 때 치솟은 물결의 꼭대기, 산 위의 정상’이라는 뜻을 지닌 순수한 우리말로, 부산마루국제음악제는 지난 2010년 첫 걸음을 내딛은 후 그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관심 속에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다. 올해는 국가 재난상황인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음악제를 일부 축소하여 개최된다. 특히 코로나19로 해외연주자들이 국내에 입국하기 힘든 상황에서 해외 우수 오케스트라 공연을 영상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국제영상음악제를 개최한다.

2020 부산국제마루음악제의 메인콘서트는 8월 28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염원, 하늘에 닿다(Long for Peace)’라는 주제로 운명, 인연, 추억, 영감, 꿈, 우리들 이야기 등 여섯가지 타이틀로 펼쳐진다. 8월 28일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개막공연 ‘운명’의 주인공은 지휘자 금난새가 지휘하는 뉴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뉴욕 타임즈로부터 ‘깊이 있고도 음악적으로 탁월한 연주자’라 찬사를 받은 피아니스트 아비람 라이히트로, 올해로 탄생 250주년을 맞는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 1악장과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제2번, 멘델스존 교향곡 제4번 ‘이탈리안’ 3악장,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4악장을 들려준다.

‘행복을 선사하는 무대 위의 나는 새’ 금난새가 음악감독 겸 지휘자로 있는 뉴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1997년 서울국제음악제를 통해 데뷔한 유라시안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전신으로, 필하모닉, 챔버, 스트링, 앙상블 등 다양한 편성의 프로그램으로 매년 30여개 지역, 100여회의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이스라엘 출신의 피아니스트 아비람 라이히트는 1997년 세계 최고의 피아노콩쿠르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반 클라이번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이스라엘 필하모닉, 예루살렘 심포니, NHK심포니, 도쿄 필하모닉, 도쿄 메트로폴리탄 심포니, 포트워스 심포니, 시카고 심포니에타, 사우스 캐롤라이나 필하모닉, 국립 도미니카공화국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정상급의 교향악단과 협연무대를 가져왔다. 아비람 라이히트는 지난 1996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제음악콩쿠르인 제1회 동아국제음악콩쿠르(현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우승자로 한국과 첫 인연을 맺은 후 현재는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메인콘서트 두 번째 무대 '인연'은 8월 29일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의 무대로 펼쳐진다. KBS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이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있는 원영석이 지휘하고 국립부산국악원 단원 김스라(생황), 영남대학교 교수 이승희(해금), 국립부산국악원 연희팀(최재근, 전성호, 금동훈, 이현철, 한용섭, 황선홍, 김재기)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2014년 부산국제마루음악제에서 초연된 도날드 워맥의 '하늘 저편에 울려 퍼지는 북소리'를 비롯해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관현악'(이상규 곡), 해금협주곡 '수나뉘'(이상규 곡), 생황협주곡 '풍향'(이준호 곡), 국악관현악 '판놀음'(이준호 곡)을 들려준다. 미국 하와이대학 교수로 있는 도날드 워맥이 작곡한 '하늘 저편에 울려 퍼지는 북소리'는 2,000년 전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고대의식을 국악관현악 편성으로 창작한 작품으로, 한국의 전통 음악이 가지고 있는 농현과 음의 피치(pitch), 그리고 각 악기가 지닌 미묘한 차이의 음색을 특징적인 표현으로 작곡했다.

메인콘서트 세 번째 무대 '추억'은 9월 1일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오로라 챔버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펼쳐진다. 러시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벨라루스 등 다양한 국적의 연주자들로, 현재 한국의 전문연주단체에 소속된 솔로리스트들로 구성된 오로라 챔버오케스트라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해외연주를 통해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로만 본더가 지휘하고 안톤 콘드라텐코(첼로), 보리스 클라브 초프(바이올린), 나디아 코자키에크(보컬) 협연으로, 젠킨스 '무장한 사람:평화를 위한 미사'를 시작으로 비발디 '사계' 중 '봄', 클라이트 '고요한 숲', 하차투리안 '가장무도회', 비제 '카르멘 서곡', 스비리도프 '눈보라', 몬티 '차르다시', 피아졸라 '리베르 탱고' 등 우리 귀에 친숙한 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지휘자 로만 본더는 러시아 하바롭스크 국립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서울팝스오케스트라, 누트리 팝스오케스트라, 러시아 하바롭스크 챔버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바 있다.

메인콘서트 네 번째 무대 '영감'과 다섯 번째 무대 '꿈'은 9월 2일과 3일 동래문화회관 대극장과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서 펼쳐진다. 동래문화회관에서는 로만 본더가 지휘하는 BMIMF 페스티벌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리스 클라브 초프(바이올린), 나디아 코자키에크(보컬), 안톤 보고몰로프(클라리넷)가 출

연,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바장조'를 비롯해 가르델 '여인의 향기' OST, 벨라스케스 '베사메무초', 엔니오 모리꼬네 '시네마천국' OST, 브람스 '헝가리 춤곡', 슈베르트 '아베마리아' 등을 들려주며, 해운대문화회관에서는 로만 본더가 지휘하는 오로라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빅터 데미아노프(피아노), 알렉산더 노술(기타), 티나(보컬)가 출연, 바흐 '피아노협주곡 라단조' 1악장, 하워드 'Fly Me to the Moon', 영화 '언덕의 세레나데' 중 'Chattanooga Choo Choo', 모차르트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1악장, 조운파 '칠갑산', 넷킹 콜 'L.O.V.E', 알마란 '사랑의 역사', 스트라우스 '라데츠키 행진곡' 등으로 관객과 음악으로 하나되는 시간을 선사한다.

메인콘서트 여섯 번째 무대 '우리들 이야기'는 콘체르토 컴피티션 갈라콘서트로, 9월 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콘체르토 컴피티션 갈라 콘서트는 국내외 연주자들의 경연을 통해 우수한 연주자를 발굴하기 위한 무대로, 본선에 오른 연주자들이 마지막 우승을 놓고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올해 무대에서는 이은빈(바이올린), 강민정(오보에), 최서희(플루트), 이정혁(피아노), 박경선(피아노), 강나해(바이올린), 김민찬(클라리넷)이 부지휘자 이민형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해외연주단체가 참석하지 못하면서 영상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국제영상음악제'를 새롭게 마련한다. 9월 2일과 9일, 16일 세차례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마련되는 이번 영상음악제에서는 지난 2018년 음악제에 초청된 항저우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비롯해 2019년 초청단체인 샤먼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역대 음악제 참가팀과 우크라이나국립오케스트라, 노르웨이 베르겐 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새롭게 소개한다. 특히 이탈리아 알바 뮤직페스티벌과의 MOU를 통해 음악제 오프닝에서 알바뮤직 페스티벌에서 공연한 작품을 소개한다.

초청연주자들의 환상적인 앙상블 무대를 만날 수 있는 '앙상블 콘서트'는 올해 브라스밴드로서 최고의 리듬감과 균형감을 지닌 디시 밴드의 무대로 마련된다. 바실리 볼로킨(색소폰), 알렉산더 카피텐코, 알렉시 보코브(트럼펫), 안톤 보고몰브(클라리넷), 알렉산드 그라신(드럼), 알렉산더 노슬(베이스), 타라스 올루브(튜바) 등 7인조 밴드로, 그동안 재즈클래식과 팝 재즈, 엔틱 재즈 등 장르간 경계를 넘나들며 그들만의 독특한 편안함과 익숙함, 흥과 즐거움으로 관객과 소통해왔다. 디시밴드의 앙상블 콘서트는 9월 16일 부산은행 본점 오션홀, 18일 부산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다.

이밖에 관객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프롬나드 콘서트', 부산연주자들의 무대로 꾸며지는 '부산음악인시리즈',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 프로젝트, 부산지역 내 학교를 찾아가는 아웃리치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메인콘서트Ⅰ '운명 Destiny'

8월 28일(금)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지휘 금난새
연주 뉴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협연 아비람 라이히트(피아노)



메인콘서트Ⅱ '인연 因緣'

8월 29일(토)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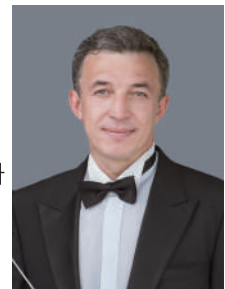
지휘 원영석 연주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협연 김스라(생황), 이승희(해금)
최재근·전성호·금동훈·이현철·한용삼·
황선홍·김재기(연희)



메인콘서트Ⅲ '추억 Memories'

9월 1일(화)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휘 로만 분더 연주 오로라 챔버오케스트라
협연 안톤 콘드라텐코(첼로),
보리스 클라브 초프(바이올린),
나디아 코자키예크(보컬)



메인콘서트Ⅳ '영감 Spiritual'

9월 2일(수)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로만 본더
연주 BMIMF 페스티벌 챔버오케스트라
협연 보리스 클라브 초프(바이올린), 나디아 코자키예크(보컬),
안톤 보고몰로프(클라리넷)



메인콘서트Ⅴ '꿈 Dreaming'

9월 3일(목)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지휘 로만 본더
연주 오로라 챔버오케스트라
협연 빅터 데미야노프(피아노), 알렉산더 노슬(기타), 티나(보컬)



메인콘서트Ⅵ

'우리 이야기 The great story'

[콘체르토 컨피티션 갈라콘서트]

9월 3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이민형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 이은빈(바이올린), 강민정(오보에), 최서희(플루트), 이정혁(피아노), 박경선(피아노), 강나해(바이올린), 김민찬(클라리넷)



아웃리치 콘서트

9월 1일(화)-9일(수) 부산지역 예술중고 및 대학교

국제영상음악제

9월 2일(수), 9일(수), 16일(수) 오후 7:3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프로젝트'

9월 5일(토) 낮 12:00,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부산음악인시리즈_음악영재

9월 8일(화)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부산음악인시리즈_라이징스타

9월 15일(화)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양상블 콘서트

9월 16일(수) 오후 7:00 부산은행 본점 오션홀

9월 18일(금) 오후 7:30 부산도서관



부산음악인시리즈_부산음악인

9월 22일(화)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프롬나드 콘서트

9월 23일(화)-25일(금)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9월 28일(월)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번음촉절^{繁音促節}과 동탕혈맥^{動盪血脈}의 무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명품 재창작 관현악'

◆ 정영진 문학박사, 경성대학교 교수

● 음악계에서 정조 무렵인 18세기 후반 한국음악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가락의 구조가 복잡하고 템포가 빨라지는 번음촉절과 고음화를 손꼽는다. 현대 한국음악의 양식적 변화는 1960년대 이후로 국악관현악단의 출현에 그 원인이 있다. 오케스트레이션을 갖춘 관현악을 위하여 자연적으로 서양음악적 양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음악의 양식적 변화는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보편의 음악으로 미래 지향성을 추구한다는 점에 매우 큰 점수를 주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탄생한 음악들을 현대적 국악관현악단 출현 70년이 지난 오늘 또 다시 변용의 음악들로 꾸며진 연주회가 2020년 7월 1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김정수 지휘로 열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인 '명품 재창작 관현악'이다.

첫 무대의 곡은 원곡인 김기수의 <청사포 아침해>를 이정호가 <바다>로 재창작한 곡이다. 원곡자인 김기수는 사실 한국의 창작 국악곡의 효시를 열었던 대금연주자이자 작곡가이다. 원곡인 김기수의 <청사포 아침해>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된 1984년 창단 원년의 위촉 작품이다. 이 곡은 이후 2010년 11월 18일 김철호 지휘로 열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54회 정기연주회의 <위촉작품 명곡전-창단부터 오늘까지>에서 한 번 더 연주되었다. 원곡인 <청사포 아침해>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창단 원년기 작품이어서 비교적 전통의 분위기를 그대로 답습하는 자세를 취한 곡이었다. 다시 말해 원곡은 정악풍의 조용한 관현악이었으나 오늘 연주된 이정호의 <바다>는 원곡과는 매우 다른 모드로 재탄생 하였다. 재창작자인 이정호 역시 원곡에 대하여 수려한 선율로 꾸며진 정제된 관현악이라고 말하며 한 음 한 음 손으로 그려진 오래된 악보를 보며 음악적 영감을 얻었다 한다. 그 음악적 영감은 현대의 새로운 감성으로 여명의 아침해가 비춰지는 청사포의 바다를 그려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리듬적 변화를 통하여 바다의 변화무상과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각 악기간의 점층적 선율의 대비는 바다의 다양한 모습들을 그려내는데 충분하였다. 원곡의 원음이 없었던 관계로 선율뿐만 아니라 리듬의 전개과정도 아예 새롭게 창작한 곡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관현악의 가장 큰 매력인 합악의 웅장함과 힘을 다양한 모습을 가진 바다에 잘 적용한 작품으로 보인다. 선율보다는 화성적 분위기로 곡의 전반을 이끌며 리듬의 분할 또한 매우 독특하다. 이것은 관현악의 표현 한계의 무한성을 이끌어 내어 보려는 작곡가의 의도인지

Review



도 모르겠다. 특히, 거문고의 연주법 변화와 해금의 정서적인 멜로디가 인상적이다. 박자와 조의 변화 그리고 리듬과 선율의 반복적인 쌓임으로 거친 파도의 압도적인 바다를 잘 표현해 내었다. 무엇보다도 이 곡은 정제된 선율로 구성된 원곡의 무상한 바다를 다른 특별한 악기의 추가 구성없이 기존 국악관현악만으로 크고 감각적인 새로운 곡으로 재탄생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두 번째 곡은 원곡인 이강덕의 <오륙도>를 이지영이 새롭게 해석한 <오륙도의 별헤는 밤>이다. 원곡인 <오륙도>는 1985년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위촉 초연한 곡으로 순정률에 충실하며 전조를 통한 오륙도의 절경과 파도소리를 그려내었던 곡이었다. 그러나 새롭게 재창작된 이지영의 <오륙도의 별헤는 밤>은 곡명이 주는 느낌대로 서정적 흐름과 목가적인곡으로 변화했다. 즉, 원곡에서는 그 모티브만 차용하였고 나머지 곡의 구성은 아예 새롭게 재창작한 곡이다. 무엇보다도 국악에서 소화하기 까다로운 반음 스케일을 사용하여 현대적인 느낌을 주었고 뱃노래의 신명나는 멜로디를 모티브로 사용하여 리듬의 다이내믹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옛모리와 자진모리에 복합 리듬을 섞어 전통 국악의 단조로움을 탈피 해보고자하는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 하지만 반음 스케일과 빈번한 전조를 통하여 긴장감과 분위기 고조를 이끌고 있으나 국악관현악만으로는 악상의 표현에 힘이 부족해보이고 관악의 음역이 지나치게 높아져 버렸다. 원곡에 비하여 현대적 새로운 무늬의 곡으로 재창작되었지만 국악관현악이 가지는 속성을 면밀히 분석하지 못한 한계도 드러난다.

다음 세 번째 무대로 이경은 작곡의 <강해연가>이다. 이곡은 원곡인 이상구 작곡의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관현악>을 딸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새롭게 재창작한 곡이다. 원곡은 1988년 4월 14일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4회 정기연주회에서 이의경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당시 작곡자의 의도는 민요속에 들어있는 소박한 토속성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적 해석에 의한 새로운 음향과 리듬을 도입시켜 관현악화 함으로써 일반 청중과 관현악과의 접근을 돕고자 한다고 피력한바 있다. 다시 말해 원곡이 발표되었던 당시 1980년대는 국악관현악단들이 의욕적으로 창작음악에 매진한 시기이다. 이 곡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신진 작곡가들이 토속민요의 주제 선율을 차용한 현대적 국악곡들을 다수 발표하는 계기가 된 곡이기도 하다. 원곡은 전체적으로 친근한 민요의 느낌과 흥겨움 그리고 신명을 관현악의 풍성한 음향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재창작된 이경은의 <강해연가

>는 흔히 랩소디로 일컫는 광시곡의 흐름을 가져왔다. 즉, 화성과 리듬의 중간적인 느낌 그리고 리듬의 촘촘한 분할과 밀양아리랑 선율의 부분적인 사용은 원곡에 비해 훨씬 현대적 느낌과 자유로움을 주고 있다. 곡의 도입부인 타악기와 더불어 나발 나각의 우렁찬 소리는 경상도 사람들의 기질적 품성을 담고 있다. 곡의 중간 브릿지로 서정적인 멜로디를 삽입함으로 원곡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 이곡의 정점이다. 이 곡은 무엇보다 국악 창작곡의 직계 계승으로 원곡의 작곡자 딸이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으로 작곡되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마지막 무대는 김성경의 <만선2020>이다. 이 곡의 원곡인 <만선>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창단연주회 위촉곡으로 1984년 9월 21일 부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이의경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또한 1984년은 원곡 작곡자 황의종의 첫 번째 작곡 발표회를 가졌던 해로 의욕적이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칠 때 <만선>이 작곡되어 그 음악적 완성도가 높은 곡으로 평가된다. 그러한 것은 이 곡이 1987년에 제7회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한 것으로도 충분히 증명된다. 표제음악의 성격이 강하며 각 악장별 주제가 뚜렷하고 음악적 구성의 짜임새와 화려한 관현악의 색채 그리고 유려한 전통음악의 어법이 녹아든 작품으로 이후 유수의 관현악단의 단곡 레퍼토리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원곡의 색채를 살려 재창작인 김성경은 표제적 이면을 가져와 모두 5악장으로 재구성 하였다. 원곡이 워낙 많이 알려졌고 또 많은 연주가 있었던 관계로 그 틀을 벗어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곡과는 또 다른 화성적 확대와 악기의 다양성 그리고 남성 합창과 창으로 음악적 구성이 더 조밀해졌음이 일면 보인다. 하지만 관현악이 성악의 반주처럼 편곡된 것은 무엇보다 원곡 만선이 가졌던 관현악의 구조적 짜임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원곡의 뱃노래 선율을 남성2부 합창으로 편곡한 것과 씻김굿의 훈맛이 노래를 천구성의 소유자 부산의 명창 박성희 소리로 표현된 것은 원곡에 버금가는 새로움이 충분하였다.

새로움은 변화이고 변화는 발전으로 가는 필요조건이다. 글로겐 슈필, 팀파니, 콘트라베이스, 신디사이저 등 관현악의 편성법 변화와 조성과 리듬의 다양성 등이 이번 연주회가 추구했던 재창작의 의미를 대신하며 이것은 과거 전통음악이 걸어왔던 번음축철의 변화를 오늘도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이 시대의 창작 전통을 만들고 그것을 향유함으로 혈맥이 뛰여 움직이는 동탕 혈맥을 맛본다.

2020년 부산으로 날아온 모스크바의 <갈매기>

부산시립극단
제68회 정기공연
'갈매기'

◆ 정봉석 동아대학교 교수, 연극평론가

●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1860-1904)는 44세의 생애 동안 소설을 위시하여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발표하였지만, 말년에 특히 그가 집중한 장르는 희곡이다. 폐결핵에 시달리면서도 그의 문학을 대표하는 장막극들이 이 시기에 집필되었다. 그의 4대 희곡 <갈매기>(1898), <바냐 아저씨>(1899), <세 자매>(1901), <벚꽃동산>(1904)은 모두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스타니슬랍스키 연출로 공연되었으며,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사실 <갈매기>는 1896년에 <러시아 사색>지에 발표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초연된 바 있으나, 흥행에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평단으로부터 혹평을 받았던 작품이다. 이에 상심한 체호프는 다시는 희곡을 쓰지 않겠노라는 다짐까지 하였다. 그런데 이 작품의 가치를 알아본 연출가 스타니슬랍스키의 설득에 의해 1898년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새롭게 연출됨으로써 유례없는 호평을 받게 된다. 이는 체호프가 세계적인 극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하나의 계기이자 사건이었다.

당시 콘스탄틴 세르게예비치 스타니슬랍스키(1863-1938)는 당대에 유행하던 판에 박힌 연극을 배격하고, 진정으로 예술적이고 혁신적인 연극을 생산하길 원했던 35세의 젊은 연출가였다. 그는 자신만의 작업을 추구하기 위해 1898년에 극작가이며 연출가인 네미로비치단첸코와 공동으로 모스크바 예술극장을 창립하였는데, 그 첫 번째 연출작이 <갈매기>(1898)였던 것이다. 그 이후 체호프의 대표 희곡들을 차례로 연출해서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렇게 보면 체호프로 인해 현대 사실주의 연출의 대명사로 불리는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이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체호프와 스타니슬랍스키가 운명적으로 조우하였던 19세기말은 프랑스에서 전파된 상징주의에 전 유럽이 감염되었던 시기였으며, 동시에 고전주의로부터 이탈한 낭만주의가 계몽주의와 자연주의를 거쳐 사실주의로 전이되어가던 예술사조의 격동기였다. 것처럼 기성의 양식과 아방가르드의 실험정신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19

Review



세기말, 스타니슬랍스키 또한 상징주의에 공명하고 인상주의·표현주의와 같은 전위극을 탐구하면서도, 그 모든 양식을 사실주의라는 용광로 속으로 용해해가던 중이었는데, 그때 스타니슬랍스키의 눈에 체호프의 <갈매기>가 뜬 것이다.

<갈매기>는 낭만주의와 상징주의가 내재된 초기사실주의의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비극적 정서가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여러 등장인물들의 사랑이 복잡하게 엮여가는 서사에는 신파적이라고 할 만큼 과도한 정념이 표출되고 있어 오히려 비극보다는 격정극에 더 가깝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사실주의의 개척비로 기념되는 까닭은 사랑과 원망, 질투와 체념으로 얽힌 인물들의 정념 너머로 전환기의 시대정신을 성찰하는 체호프의 비극적 전망이 서려있기 때문이다. 젊은 작가지망생인 '뜨레블레프'는 새롭게 도래할 시대정신을 표상하지만, 기성관념에 굳어버린 그의 어머니 '아르까지나', 그의 사랑 '니나', 그의 연적 '뜨리고린' 등으로부터 무시되거나 이해받지 못한다. 그 대립의 양상은 마치 19세기의 낭만주의와 20세기의 모더니즘에 대한 비유처럼 비춰진다.

<갈매기>가 뜨레블레프의 자살로 막을 내리는 이유는 그러므로 중의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겉으로는 자신의 사랑을 외면하고 뜨리고린을 향해 떠나는 니나에 대한 상실감 때문이지만, 그 죽음 충동에는 진부하고 편협한 기성예술에 대한 저항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이중의 구조로 인해 <갈매기>는 극심한 혹평과 유례없는 호평이라는 극과 극을 오갔던 것이다.

뜨레블레프 ... 어머니 극장을 사랑하고 당신이 인류애와 신성한 예술에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 요즘 극장은 진부하고 편협해요. ... 그 종류가 수천 개 되더라도 나한테는 다 똑같이 여겨져서 자신의 머리를 누르는 에펠탑의 저속함에서 도망치던 모파상처럼, 저도 도망치고 또 도망치게 돼요.

뜨레블레프 필요한 것은 새로운 형식입니다. 새로운 형식이 필요하고, 만일 그게 없다면, 아무 것도 없는 게 더 나아요. ...

그렇게 새로운 양식을 개척하였던 <갈매기>도 이제는 고전이 되었다. 12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체호프가 존경한 모파상이 그렇게도 경멸했다는 에펠탑처럼 '수천 개'의 모조품들이 사실주의의 판박이(cliché)가 되어 찍혀 나왔다. 그런데 인쇄술이 진화

하듯이 클리셰도 진화하기 마련이어서, 이제는 원본 <갈매기>가 도리어 클리셰처럼 보이는 경지에 이른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2020년 부산시립극단의 <갈매기>에 기대를 걸었던 이유였고, 공연을 보고 난 지금 왜 체호프인가 되묻고 싶은 이유이다.

우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를 원형소극장처럼 꾸민 것은 새로웠다. 네 구역으로 나뉜 객석이 서로를 마주보면서 무대를 내려다보는 구조가 <갈매기>의 무대 배경이 되는 호수의 이미지에 부합하였다. 객석 뒤쪽으로 둘러쳐진 테라스 형식의 통로도 극의 상황들을 동시에 연출하거나 막간극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에 일조하였다. 200석으로 예정되었던 좌석이 코로나19로 인해 100석으로 여유로웠던 것도, 배우들의 연기와 함께 마스크를 쓴 관객들의 반응을 동시에 보는 것도 이색적이었다.

반면에 극의 도입부에 전개되는 뜨레블레프 연출의 극중극을 희화화시킨 것은 심각해보였다. 뜨레블레프가 어머니에게 자신의 작품을 소극(笑劇)이라고 소개했던 것은 일종의 반어법인 셈인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것에서 연출의 방향타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뜨레블레프의 진정성이 무시당함으로써 치욕적인 상처가 되고, 그것이 자살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기에, 극중극은 작품의 향방을 예고하는 매우 중요한 극적 모티프가 된다.

그에 이어 또 하나 눈에 띄는 부산시립극단의 연출은 결말부에서 뜨레블레프의 자살을 알리는 총소리에 이어, 원작과 달리 한 방의 총소리를 더 울린 것이다. 니나가 떠난 뒤로 2년이 지난 4막에서, 뜨레블레프는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기 시작하는 성장을 보인다. 이에 비해 니나는 변함없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유명 여배우 아르까지나를 선망하고 뜨리고린의 낭만주의 문학에 취하여 그의 아이까지 출산하였던 니나가 돌연 뜨레블레프의 지순한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뒤따라 자살을 하는 결말은 공감하기가 어렵다. 연출의 방향이 사실주의에서 격정극으로 조금 더 퇴행해간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은 아니다. 부산시립극단은 올 11월 <체호프의 이야기>(5개의 단편 옴니버스 연출)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된 <벚꽃동산>(강성우 연출)으로 새로운 도전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기대해볼 일이다. 독자 제위께서는 이 글을 이어질 관극에 작은 참고 정도 삼으시기 바란다.

코로나 일상에도 포기하지 않은 창작의 향연

제29회 부산무용제

◆ 이상현 춤 비평가
사진 박병민 사진가

● 29회를 맞은 부산무용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어떤 것도 코로나 19를 비켜가지 못했다. 지난달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린 부산무용제(아래 '무용제')는 소수의 관계자만 지켜보는 가운데 무 관객 공연으로 치러졌다. SNS 생중계를 병행했지만 출연자, 관객 모두에게 아쉬움이 남았다. 필자도 공연을 영상으로 접했기에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작품의 디테일을 놓친 것이 아닐까 개운하지 않다. 이런 중에 그나마 고무적인 일은 작년보다 많은 5팀이 참가한 것과 현대무용단 자유의 박근태, 춤매 바람의 강주미, 하야로비 무용단의 정기정 등 무용제에 자신의 작품을 선보인 적이 없는 안무자를 만난 일이다.

첫날 현대무용단 자유와 부산발레연구회의 작품이 무대에 올랐다. 현대무용단 자유의 <Stranger-in court>는 안무자 박근태가 무용제 직전 있었던 부산국제무용제 AK 21 경연에서 선보인 <A Monologue>와 연작으로 볼 수 있다. <A Monologue>는 <Stranger-in court>와 마찬가지로 카프카의 소설 <이방인>을 모티브 삼은 작품인데, 여기에서 법정(court) 장면을 흐름 속에서 다루었다. 소설 속 법정 장면은 주인공 뫼르소의 우발적 살인을 비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불경한 계획 살인으로 몰고 가는 검사, 판사, 증인, 배심원을 보여 주는데, <Stranger-in court>는 법정 장면에 초점을 맞춘다. 작품 길이와 무대 장치 등에 규제를 받았던 <A Monologue>에 비해 무대장치와 출연자가 풍성해지고 구성이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A Monologue>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설 내용을 옮긴 대사와 움직임의 상호 개연성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춤과 글 쓰기의 결과물인 텍스트는 이질적이며, 상호 '번역 불가능성'의 층위에 존재한다. 텍스트를 춤으로 완벽하게 번역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 예술 장르를 다른 예술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탈락하는 것과 획득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발터 벤야민이 완벽한 번역이 아니라 '번역 가능성'을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능성은 잠재된 영역이다. 가능성이 실현되면 현실성이 된다. <Stranger-in court>는 소설 <이방인>을 창의적

Review

대무용단 자유 <Stranger-in court>



오독을 통해 춤으로 현실화하려 했다. 소설 <이방인>으로 연작까지 만든 안무자는 자신의 시도에 만족할지 몰라도 시도가 의미를 갖는 조건에 관객이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부산발레연구회는 김한나가 안무한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를 선보였다. 부산발레연구회의 작품을 논하기 전에 이 단체가 거의 빠지지 않고 무용제에 참가하는 끈기와 책임감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부산 발레는 타 장르와 비교해 부산에서 활동하는 현역 무용가, 발표 작품 수 등에서 약세다. 부산발레연구회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매년 창작발레를 선보인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바람이 있다면 부산 발레의 젊은 안무가들이 지치지 않고 다음, 그다음 창작을 내어 놓는 것이다.

둘째 날은 춤패 바람과 하야로비 무용단의 작품이 올랐다. 강주미가 안무한 춤패 바람의 <역사의 천사>는 기미년 3:1 운동을 거치면서 독립투사가 된 한 여인의 서사를 내세워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 운동가를 조명한다. 작품의 장점은 독립군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독립투쟁의 결기로 승화한다는 뚜렷한 줄거리다. 안무자는 작품에서 동작적으로 탈춤을 포함한 민속춤 사위를 활용하고 안무법으로 '전통춤과 신무용을 잇는 교합적' 방법을 택했다고 말한다. 전통춤과 신무용이 만난 것은 약 100년 전이다. 신무용의 선구자라 불리는 최승희, 조택원은 초기에 전통춤을 신무용에 포용하려는 시도를 했었고 그 결과는 이미 학계에서 정리되었다. 과연 안무자는 이 오래된 시도를 어떻게 동시대화 했을까. 더구나 '인간 존재의 심연을 묵도'하거나 '박제된 서사가 아닌 비약을 감행하는 존재의 전형 그리기'라는 깊은 의도까지 담았다고 하니 기대와 궁금증이 컸다. 기대가 컸던 탓인지 비평 경험이 일천해서인지 작품에서 '교합적 안무' 지점과 '존재 심연'이나 '비약하는 존재의 전형'을 찾기가 어려웠다. 너무 큰 그림을 그리려 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관객이 작품에서 안무법과 의도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낯선 구성이었는지 가능할 수 없었다.

하야로비 무용단의 <태..., 胎>는 정기정이 안무했다. <태..., 胎>는 소품이나 무대 장치 없이 움직임에 승부를 건다. 댄스(dance)의 어원이 산스크리트 Tanha(탄하)이며 Tanha는 '생명의 욕구'를 뜻한다. 생명의 근원에 닿아있는 춤의 본질에 다가가고 싶은 무용가라면 한 번쯤 도전할 만한 주제다. 문제는 경연 무대에 올리기에 주제의 추상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안무자는 나름대로 태초의 생명, 움직임이라는 추상적 주제를 인간의 삶과 연결해 현실화·구체화하려 고민했다. 그런데 춤의 생명적 에너지가 작품이 반 정도 지나고서야 드러나 그 순간까지의 시간이 보는 이에게 길게 느껴졌다. 춤추는



춤패 바람 <역사의 천사>

입장은 긴장한 채 준비한 구성을 소화하느라 느끼지 못했겠지만, 관객 입장에서는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힘들 수 있었다. 도입-전개에 소모하는 시간을 줄여 에너지 넘치는 춤을 더 빨리 드러내는 등 구성에 변화를 준다면, 독창적 움직임과 감성이 더욱 살았을 것이다.

경연 마지막 날은 손영일 무용단의 <부모님께 쓰는 편지>가 올랐다. 안무자 손영일은 부산에서 손꼽는 안무가로 끊임없이 각종 경연무대의 문을 두드린다. 보편적 감정을 개인화해 내밀하게 풀어내던 이전 작품과 달리 <부모님께 쓰는 편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부모와 자식 사이의 보편적 감성으로 확대한다. 보편성이라는 가리개를 걸고 자신을 내 보았다. 먼 길을 돌아 자기에게 환원한 성찰적 주제에서 느껴지는 건강성과 감성적 공감 지점이 보이지만, 풀어내는 방식이 작품에 특화되었다기보다 상투적 감성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 신선함이 약하다.

올해 대상은 현대무용단 자유의 <Stranger-in court>가 받았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텍스트(소설)를 춤으로 형상화 한 실험적 시도가 좋은 평가를 받았으리라 짐작한다. 경연 특성상 순위를 따져야 했지만, 올해 참가한 모든 작품은 일상을 옥죄는 상황에도 창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클래식은 내친구

일 시 | 8월 11일 화요일 오후 3:30,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매년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위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특별한 음악선물 '클래식은 내친구'. 올해 무대에서는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미리 신청받은 '청소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들려주는 한편, '제76회 청소년협주곡의 밤' 협연자 선발 오디션에서 1위를 차지한 경성대학교 1학년 조예림의 플루트 협연도 펼쳐진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플루트 협주곡 제1번 중 제1, 3악장
브리튼/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퍼셀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
- 지휘/최수열(예술감독), 이민형(부지휘자)
 - 내레이션/서보기(부산시립극단 단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일 시 | 8월 12일 수요일 오후 8:00 대극장
입장료 | 1층 1만원, 2층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흥겨운 국악선율로 날려버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김종욱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진주삼천포농악 전수 조교로 있는 조갑용과 국경과 음악, 세대 간의 경계를 허물며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설장구 연주가 겸 작곡가 민영치, 부산가야금연주단 대표 문정원, 단원 김지연, 김소정, 유승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피리 부수석이자 무형문화재 중요요제례악 및 피리·대취타 이수자인 진형준이 출연, 신명넘치는 국악 창작곡으로 무더위를 씻어준다.

소프라노 서유희 독창회

일 시 |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서유희 010-3267-8182



연재로교회 성가대 지휘자이자 러시아음악연구회 회원, 라보레무스 아카데미 대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서유희 독창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불가리아 청소년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서유희는 러시아, 불가리아를 중심으로 다수 무대에 서왔으며,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등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했다. 귀국 후에는 독창회를 비롯해 러시아 가곡의 밤, 브릴란테오페라 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났던 서유희는 이번 무대에서 차이콥스키 가곡을 비롯해 헨델, 베르디, 도니제티, 벨리니 오페라 아리아, 우리민요 등을 들려준다.

- 해설/박서희 • 피아노/이수진
- 테너/김정권 • 해금/강민승
- 찬조출연/박효담, 이보배 • 피아노/김민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75주년 광복절 기념 및
코로나 극복 기원 프로젝트
위로(Consolation)

일 시 | 8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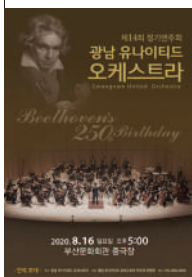
코로나19에 따른 공연장 휴관으로 그동안 무대에 서지 못했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제75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광복절 기념 및 코로나 극복 기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Consolation(위로)'.

수석지휘자 이명근의 지휘로 모차르트 최후의 작품인 '레퀴엠'을 비롯해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힐링의 무대를 선사한다.

- 태평소/박주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제14회 정기연주회

일 시 | 8월 16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010-3860-6646



광남초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의 14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1999년 광남초등학교 관현악부로 출발한 후 2007년 지금의 오케스트라로 재창단한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는 그동안 매년 정기연주회 및 요양원 방문 등 특별연주회를 통해 관객과 음악으로 소통해왔다. 부산시립교향악단 호른주자이자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있는 윤강수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을 비롯해 홀스트 '행성 모음곡' 중 제1곡 '화성'과 제4곡 '목성'을 들려준다.

2020 현대무용단 자유 정기공연

일 시 | 8월 17일 월요일 오후 8:0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객석 거리두기 시행)
문 의 | 현대무용단 자유 010-8541-3428

지난 1995년 창단된 후 매년 새롭고 다양한 창작무대를 통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대무용단의 2020년 정기공연.

그동안 현대무용의 기초 작업과 새로운 예술 형식을 창출하면서 지역 무용계 발전에 기여해온 현대무용단 자유는 2016 제37회 서울무용제 우수상, 20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올해의 레파토리 선정, 2018년 부산국제무용제 국제안무가육성공연 AK21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올해 제29회 부산무용제에서 'Stranger-in a court' 가 대상 및 안무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 공간의 감정(안무/문은아)
처용-불안과 불신 속에서(안무/박근태)

**BNK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2020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 음악, 치유를 위한 8개의 레시피

일 시 | 8월 15일(토)-29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5:00 **중극장·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www.bscc.or.kr



화려한 라인업과 풍성한 레퍼토리로 정통 실내악의 감동을 선사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2020년 무대.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홀인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을 기념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열어온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은 매년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이 참여하여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실내악의 향연을 펼쳐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을 위해 '음악, 치유를 위한 8가지 레시피(생명·도전·행복·용기·믿음·낭만·열정·희망)'라는 주제로 음악을 통한 힐링의 무대를 선사하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 좌석제'로 운영된다.

I. 생명(life)_부산시향 역대 악장들이 선사하는 '4인 4색 4계 선율 속으로'

8월 15일(토) 오후 5:00 중극장
• 지휘/박성완 • 연주/BMF 챔버 오케스트라
• 바이올린/김복수, 신상준, 김동욱, 임홍균



II. 도전(challenge)_조이 오브스트링스의 The Color of Classics : 컬러 심리로 보는 클래식

8월 16일(일) 오후 5:00 챔버홀
• 연주/조이오브스트링스(예술감독/이성주)
• 해설/이상민(비올리스트)

III. 행복(happiness)_시그니처 콘서트 첫 번째 '국내 최정상 음악가들의 실내악연주회'

8월 21일(금) 오후 7:30 중극장
• 바이올린/데니스 김, 임홍균, 김영준, 조혜운
• 비올라/김상진, 배은진, 황여진
• 첼로/김민지, 이명진, 김민승

IV. 용기(brave)_힐링콘서트 '우리를 위한 특별한 콘서트'

8월 22일(토) 오후 5:00 중극장
• 사회/이지선(에세이 '지선아 사랑해' 저자)
• 악기제작/김민성

- 연주/양상블 숨(바이올린 조은비, 심신지·비올라 윤솔샘·첼로 김하늘), 김대영(피아노), 트리오 피아체(바이올린 조무종·첼로 정윤혜·피아노 박정희), 가영(비올라), 진선(반도네온), 황안나(피아노), 이병주 밴드



V. 믿음(faith)_소프라노 박은주와 카운터테너 김대경의 엔틱부터 모던까지

8월 25일(화) 오후 7:30 챔버홀
• 소프라노/박은주
• 카운터테너/김대경
• 바로크첼로, 비올라 다 감바/강효정
• 첼블로/이승민
• 피아노/전해란
• 바이올린/김동욱
• 비올라/최영식



VI. 낭만(romance)_살롱콘서트 '한여름 밤, 소팽을 만나다'

8월 27일(목) 오후 7:30 챔버홀
• 연주/양상블 데어토니카(바이올린 장선경, 한효, 김수영·첼로 예지은·더블베이스 신인선·피아노 심희정), 황성훈(피아노), KNN 필챔버 앙상블(바이올린 양경아, 박완서·비올라 유정주, 첼로 이예성, 더블베이스 박성진)



VII. 열정(passion)_대학실내악축제 '부산의 future & culture'

8월 28일(금) 오후 7:30 챔버홀
• 출연/부산대학교(지휘/김진연), 동아대학교(지휘/이명진), 동의대학교(지휘/윤상운), 경성대학교(지휘/임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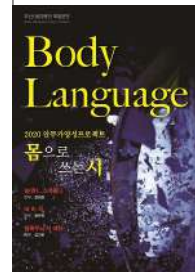


VIII. 희망(hope)_시그니처 콘서트 두 번째 '영화가 사랑한 클래식, 클래식이 사랑한 뮤지컬'

8월 29일(토) 오후 5:00 중극장
• 지휘/정인혁
• 연주/BMF 오케스트라
• 협연/김다미(바이올린), 장재혁(클라리넷), 최영식(비올라)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20 안무가양성프로젝트
몸으로 쓰는 시**

일 시 |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부산시립무용단이 매년 수준높은 안무가 양성을 위해 마련하는 안무가 양성 프로젝트 '몸으로 쓰는 시'. 자신만의 춤 언어와 몸짓으로 빛어낸 단원들의 참신한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농(弄)·사무치다(안무/장래훈, 출연/장래훈, 김수잔, 류가빈, 하현정)
따라 지(안무/윤은하, 출연/윤은하, 강모세)
얼룩무늬 저 여자(안무/김미란, 출연/김미란, 이송희, 김주연, 황지선)

G. Verdi 'La Traviata'
꽃처럼 피다 꽃처럼 시들어버린 내 사랑이여

일 시 | 8월 23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문 의 | 맨즈하모니 010-2752-9923



부산지역 성악가들과 미디어 아티스트의 협업으로 탄생된 특별한 무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비올레타와 알프레도의 신분을 뛰어넘는 비극적 사랑을 그린 작품

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구조물을 활용한 미디어 아티스트의 영상작업을 통해 공연장이라는 무대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공간으로의 변화를 꾀하며 영상연출을 통한 새로운 무대해석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이번 무대에서 주인공 비올레타 역은 소프라노 왕기현이, 알프레도 역은 테너 양승엽, 제르몽 역은 바리톤 강경원이 맡아 비극적 사랑의 노래를 들려준다.

- 피아노/김경미 • 미디어 아티스트/황성운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신인연주자 데뷔 콘서트

일 시 | 8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626-8081

부산시 지정 전문법인예술단체로, 지난 1996년 창단한 후 다양한 무대에 서온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 오케스트라인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차세대 음악계를 이끌어갈 신인연주자 데뷔 무대로 마련된다.

- 지휘/윤상운(동덕대학교 교수)
- 협연/강신중, 강지나, 박우수, 안선영, 윤하은, 양다현, 박동현, 김지현, 김찬인, 박선우



부산대학교 교수 임용기념 바리톤 이광근 초청 독창회

일 시 | 8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독일 하겐극장 오페라 전속가수로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바리톤 이광근 독창회. 연세대학교를 수석졸업하고 이태리 베르디 국립 음악원에서 석사, 독일 마인츠 음악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광근은 그동안 일본 교토, 이태리 부세토, 스페인 바르셀로나, 노르웨이 오슬로 등 수많은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오페라 '돈 카를로', '토스카', '오델로', '라 트라비아타', '아이다', '나부코' 등 오페라 주역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광근은 지난해 부산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여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테너/김충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현대무용단 '스윙'

일 시 | 8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1번),
 www.bscc.or.kr



시대를 풍미한 스윙재즈 음악과 현대무용의 경쾌한 만남, 국립현대무용단의 '스윙'.

지난 2018년 전석매진을 기록한 화제작 '스윙'은 국립현대무용단 안성수 전 예술감독이 안무, 연출을 맡은 작품으로, 스윙 음악

이 품은 리듬과 에너지를 현대적 움직임으로 풀어내면서 국립현대무용단의 인기작으로 2018년 4월 초연 후 지금까지 전국 순회공연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스웨덴 재즈밴드 '젠틀맨 앤 갱스터즈'의 흥겨운 재즈음악과 함께 국립현대무용단의 리드미컬하고 경쾌한 춤이 펼쳐지면서 '한 편의 뮤지컬을 본 것 같은 무용 공연', '마치 할리우드 고전영화 속 재즈클럽에 온 것 같다' 등 다양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드라마틱 플루트·플루티스트 필립 윤트
 일 시 | 8월 28일 금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대표적인 브런치 콘서트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8월 무대에서는 유럽과 한국을 무대로 클래식 한류의 전도사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플루티스트 필립 윤트가 관객들과 만난다.

이번 무대에서 필립 윤트는 플루트 명곡을 비롯해 '드라마틱 클래식'을 통해 사랑받았던 드라마 '도깨비', '태양의 후예' OST를 들려준다.

- 진행/박찬민(SBS 아나운서)
- 피아노/연효정

2020 창작연희The늬름 정기공연 풍류를 노니는 구름의 신 '운사'

일 시 | 8월 30일 일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창작연희The늬름 010-7153-5501



국가지정무형문화재 11-1호 진주·삼천포 12차 농악,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부산시무형문화재 제18호 부산고분도리걸립, 솟대쟁이, 가락오광대 등 무형문화재 이수자, 전수자들로 구성된 창작연희The늬름의

2020년 무대.

'더늬름'이란 판소리에서 제자가 스승에게 배운 소리를 자신의 색깔을 더하고 다듬어 새로이 부르는 대목을 의미하는 말로, 전통예술의 계승, 발전은 물론 새로운 시도와 도전으로 전통연희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단군신화와 고조선 건국, 구름의 신 운사를 바탕으로 북을 활용한 춤과 놀이 등 다양한 연희를 만날 수 있다.

2020 제1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염원, 하늘에 닿다 Long for Peace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프로젝트

일 시 | 9월 5일 토요일 오후 12:00, 오후 4:00
대극장
 문 의 |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부산 청소년 및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마루국제음악제가 마련하는 무대.

참가팀

- 나우리청소년오케스트라(지휘/이웅희)
-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지휘/김영민)
- 소명청소년관현악단(지휘/김재준)
- 울산남구청소년오케스트라(지휘/오창록)
- 이안오케스트라(지휘/김하균)
- 가남오케스트라(지휘/여대현)
- 오륙도드림오케스트라(지휘/여대현)
- 옥샘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박진홍)
- 천가은행나무오케스트라(지휘/권기현)
- 동향중학교오케스트라(지휘/김영민)
- 경남공업고등학교윈드오케스트라(지휘/최준호)
- 부산공업고등학교윈드오케스트라(지휘/박미선)

**2020 제1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엄원, 하늘에 닿다 Long for Peace
메인콘서트VI
'우리 이야기 The great story'
[콘체르토 컨피디션 갈라콘서트]**

일 시 | 9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문 의 |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최정상의 클래식 음악축제 '2020 제11회 부산마루 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마지막 무대. 이번 무대는 국내외 연주자들의 경연을 통해 우수한 연주자를 발굴하기 위한 콘체르토 컨피디션 갈라콘서트로, 지난 7월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연주자들이 마지막 우승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 지휘자 이민형은 드레스덴 국립음대를 거쳐 스코틀랜드 왕립 예술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영국 왕실 장학금인 로얄 트러스트와 런던 어니스트 리즈 재단으로부터 젊은 지휘자상을 수상하였으며 스코틀랜드 왕립 예술원의 지휘자

겸 프로그램 어시스턴트로 상주하며 영국 전역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였다. 제53회 프랑스 브장송 국제 콩쿠르에 진출하며 국제무대의 주목을 받은 이민형은 그동안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를 객원지휘했으며 2019년 6월부터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 프로그램**
생상/바이올린협주곡 제3번 나단조 작품 61
J.W 갈리오타/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바장조 작품 110
모차르트/플루트협주곡 제2번 라장조 작품 314
쇼팽/피아노협주곡 제2번 바단조 작품 21
라흐마니노프/피아노협주곡 제2번 나단조 작품 18
브람스/바이올린협주곡 라장조 작품 77
M. 아놀드/클라리넷협주곡 제2번 작품 115
- 지휘/이민형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 협연/이은빈(바이올린), 강민정(오보에), 최서희(플루트), 이정혁(피아노), 박경선(피아노), 강나혜(바이올린), 김민찬(클라리넷)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9 부산 신진 예술페스티벌 최우수작품 선정
가족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

일 시 | 9월 3일-4일 목-금요일 오전 10:30, 오후 1:30, 5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중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24개월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재)부산문화회관이 지역 예술인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마련한 '2019 부산 신진 예술페스티벌'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극단 오오씨어터의 창작 가족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 판소리 '수궁가'를 오늘날의 새로운 이야기로 풀어낸 작품으로, 화려한 바닷속과 웅장한 육지를 오가는 별주부 자라와 토선생의 목숨 건 이야기가 배우들의 생생한 라이브와 무대를 가득 채운 안무 속에 펼쳐진다.

부산시민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여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

일 시 | 7월 31일 금요일 오후 7:30, 8월 1일 토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15세 이상 입장,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두 형제의 삶을 통해 삶의 현주소를 질문하는 웰메이드 연극 '여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 어린 시절 고향을 등지고 도회지로 나왔지만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평생 변방을 떠돌다 노인이 된 동생과 오롯이 땅을 일구고 살아왔지만 녹록치 않은 삶을 사는 형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 운명, 삶과 인생, 죽음 등을 묵직한 성찰의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다.

- 작, 연출 / 박근형

**부산시민을 위한 2020 부산국악축제 I
비손-치유를 소망하다**

일 시 | 8월 22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사)부산국악협회 644-5211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부산시민들을 위해 (사)부산국악협회가 마련하는 2020 부산국악축제 '비손-치유를 소망하다'. 의술과 더불어 신앙으로 역병의 치유를 바랐던 과거, 지금보다 더 참혹한 역병 속에서 삶을 살아내고 적극적으로 이겨내고자 했던 선조들의 의지를 전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5막으로 구성된 가무악 무대를 통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프로그램
1막 평온과 태평성대
2막 심신의 타락과 마마의 등장
3막 치유를 위한 비손
4막 반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
5막 지금 우리의 마음을 모아

**2020년 부산시민회관 문화가 있는 날
뮤지컬 명작극장 '캣츠'**

일 시 | 8월 28일 금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초등학생 관람가)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민회관이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 마련하는 '문화가 있는 날' 무료 영화상영회. '뮤지컬 명작극장'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올해는 '캣츠',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미스 사이공' 등 뮤지컬 Big4를 비롯해 시

대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뮤지컬 명작을 대형 화면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8월에는 세계에서 흥행에 가장 성공한 뮤지컬 중 하나인 캣츠(Cats)를 상영한다. T. S. 엘리엇의 시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를 기반으로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작곡한 '캣츠'는 1981년 영국 런던 웨스트 엔드에서 초연한 후 이듬해인 1982년 브로드웨이에 진출하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음악

스페이스 음 음악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8:00
(29일은 오전 11시) 스페이스 음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스페이스 음 557-3369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예술'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다양한 공연, 전시를 통해 지역 공동체와 소통해온 스페이스 음 8월 무대.

7일(제388회) 8월의 크리스마스 '선영아, 사랑해 with 5 pianists'

연세영, 박정현, 박필은, 하지림, 하지원 등 5인의 피아니스트들이 암 환우인 선영씨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기 위해 마련한 자선음악회.

14일(제389회) 백동훈 클라리넷 독주회



악여행을 떠난다.
• 피아노/성민주

코로나19로 여행을 떠나기 힘든 요즘, 클라리넷리스트 백동훈과 함께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음악으로 세계여행을 떠나는 특별한 무대.

프랑스, 러시아, 독일, 미국의 음악을 통해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나라로 음



21일(제390회) 기타리스트 안형수의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 날'

한국인의 서정을 독보적 기타선율로 표현하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안형수의 무대.

안형수는 스페인왕립음악원을 수료하고 그동안 7장의 독집과 다수 기획음반, 디지털 음원을 발매했으며, 다수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클래식 기타의 매력을 전하고 있다.

28일(제391회) 클래식 인사이드:Gustav Klimt & Ludwig Van Beethoven

피아니스트 김부용의 아트앤뮤직 레저콘서트 피아니스트 김부용의 해설로 음악과 미술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아트 앤 뮤직' 레저콘서트.

29일(제392회) 오전 11:00 Welcome Kids Concert '디어 마이 뮤지션:Beethoven 편'

아이와 부모가 함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가족음악회로, 피아니스트 김부용과 플루티스트 지현주의 연주로 베토벤 명곡을 감상할 수 있다.

현대예술기획 초청

리벤토 현악사중주 콘서트

일 시 | 8월 1일 토요일 오후 1: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현대예술기획 010-6396-4917



이현재 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박재린을 중심으로 심포니송 오케스트라 악장 김정수와 과천시립교향악단 비올라 부수석 박운주, 슬라브국제공쿠르 1위에 빛나는 첼리스트 박기흥으로 구성된 리벤토

(Livento) 현악사중주의 무대.

리벤토(Livento)는 Libero(자유로운)와 Vento(바람), 두 단어를 조합한 단어로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참신한 음악을 관객들에게 선사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1900년대 이후 작곡된 현악사중주 작품을 비롯해 관객들에게 현대음악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곡들을 소개한다.

제17회 짜장콘서트

사랑과 추억과 그리움

일 시 | 8월 1일 토요일 오후 4:00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입장료 | 전석 1만원(선착순 20명 사전예약제)

문의 | 음악풍경 987-5005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이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짜장콘서트.

음악의 저변확대 및 청년음악가의 발굴·개발, 프로음악가의 연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특히 콘서트가 끝난 후에는 관객들이 출연자들과 함께 짜장면을 먹는 뒷풀이 기회도 제공한다.

8월 무대에서는 경성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왕기현, 청년음악가로 데뷔하는 테너 성민기, 음악풍경 전속 앙상블 프로무지카가 출연, 사랑과 추억, 그리움이 묻어 나오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진행/이진이

울속도 명품콘서트 시리즈II 고전시대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콘서트

첼리스트 양성원 & 피아니스트 빈센트 드 브리스

일 시 | 8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인터파크티켓 예매시 20% 할인)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리는 프로젝트로 클래식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하는 울속도 명품콘서트 두 번째 무대.

한국을 대표하는 첼리스트 양성원과 2011년부터 음악적 동행을 가져오고 있는 피아니스트 빈센트

드 브리스가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첼로를 독주 악기의 반열에 올려놓은 베토벤 '첼로소나타 1번'과 그의 첼로소나타 중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첼로소나타 3번', 그리고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중 '연인인가 아내인가'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등을 들려준다.

자적이고 독창적인 해석과 연주로 세계 주요 언론과 청중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첼리스트 양성원은 바흐의 '첼로 무반주 조곡' 전곡을 두 차례에 걸쳐 음반 발매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양성원은 올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과 변주곡을 서울과 부산, 여수 등지에서 연주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 명예상 은상을 수여받은 네덜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 빈센트 드 브리스는 미국 텍사스 대학과 베일러 음악대학에서 오랜 기간 교수로 있다가 지난 2010년 연세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후 연주활동과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오랜 세월 음악적 여정을 함께하며 완벽한 호흡과 따뜻한 감정의 교환으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해온 양성원과 빈센트 드 브리스는 이번 무대에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관객들에게 음악이 주는 위로와 감동을 선사한다.

절영Arirang-영도의 사계절을 노래하다 한여름 밤의 합지골

일 시 | 8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자연이 아름다운 영도의 명소를 국악연주로 들려주는 '절영Arirang-영도의 사계절을 노래하다' 세 번째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전통국악의 아름다움과 창작국악의 멋스러움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4년 창단한 부산국악오케스트라와 함께 한여름밤의 합지골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현재 지휘자 홍희철을 중심으로 30여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국악오케스트라는 그동안 1,000회가 넘는 무대를 통해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무대로 관객과 만나왔다.

- 테너/김창돈 • 소프라노/윤선기
- 피아노/박재나 • 춤/맥무용단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조희창의 클래식 레시피 '길 떠나는 클래식' 한여름날의 음악 여행

일 시 | 8월 25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커피제공)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3



금정문화회관이 짝수 달 마지막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마련하는 11시 브런치 콘서트 8월 무대.

'길 떠나는 클래식_한여름날의 음악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코로나19로 일상에 갇혀버린 관객들에게

음악과 해설을 통해 세계 각지를 여행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 베토벤/클라리넷트리오 제4번 3악장 '거리의 노래'
- 비발디/'사계' 중 '여름' 등 수곡
- 해설/조희창

K-ARTS 찾아가는 문화행사 국악뮤지컬 '탄생의 신, 삼신'

일 시 | 8월 28일 **금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만 5세 이상)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3



국악과 뮤지컬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음악극 '탄생의 신, 삼신'.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묻는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로 꾸민 이번 무대는 하나의 생명이 얼마나 간절한 기원 속에서 태어나는

지, 열 달이라는 긴 시간동안 엄마가 아기를 얼마나 소중하게 지켜내는 지를 배울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직접 소리와 노래를 하며 극에 참여할 수 있게 제작된 참여형 뮤지컬로, 판소리 특유의 생동감 있는 '말맛'을 살려 우리말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의 멋에 흠뻑 빠질 수 있다.

이번 무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K-ARTS 찾아가는 문화행사'로 '띠엄띠엄 좌석제'를 적용하여 전화로 예매한 선착순 70명에 한하여 관람할 수 있다.

2020 제1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개막공연 염원, 하늘에 닿다 Long for Peace 메인콘서트 I '운명 Destiny'

일 시 | 8월 28일 **금요일** 오후 8: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인터파크티켓 예매시 20% 할인)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 클래식 음악축제 '2020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개막 무대.

'염원, 하늘에 닿다 Long for Peace'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2020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는 금년새가 지휘하는 뉴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울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아비람 라이케르트의 협연으로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팬텀싱어3 콘서트

일 시 |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00
벅스코 제1전시장 1홀
입장료 | R석 12만1천원, S석 11만원
문의 | (주)월드쇼마켓 1566-5490



크로스오버 남성4중창 그룹을 결성하는 국민 오디션 프로젝트 JTBC 팬텀싱어 시즌 3.

불꽃같은 테너 박기훈, 전설의 테너 파페라 가수 유채훈, 독일 유학파 귀요미 바리톤 정민성, 세상에 없던 목소리의 카운터

테너 최성훈으로 구성된 '라포엠', 피아노 치는 소리꾼 고영열, 첼로선율을 닮은 베이스 김바울, 줄리어드·예일음대 출신 성악천재 존노, 실력파 뮤지컬 원석 황건하의 '라비던스', 그리고 여심저격 순수테너 김민석, 진심을 담아 노래하는 순수 청년 김성식, 런던 로얄오페라단 소속 성악가 길병민, 낭만을 노래하는 유니크한 목소리의 박현수로 구성된 '레떼아모르' 등 최종 결승 진출 세 팀이 선보이는 최고의 무대가 펼쳐진다.

2020 제1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염원, 하늘에 닿다 Long for Peace 메인콘서트 II '인연 因緣'

일 시 |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문의 |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최정상의 클래식 음악축제 '2020 제1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두 번째 무대.

KBS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이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있는 원영석이 지휘하는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의 연주로, 2014년 부산국제마루음악제에서 초연된 도날드 워택의 '하늘 저편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를 비롯해 다양한 창작국악곡을 들려준다.

- 협연/김소라(생황), 이승희(해금), 최재근·전성호·김동훈·이현철·한용섭·황선홍·김재기(연희)

2020 제1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염원, 하늘에 닿다 Long for Peace
 메인콘서트III '추억 Memories'

일 시 | 9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문 의 |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최정상의 클래식 음악축제 '2020 제1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세 번째 무대.

러시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벨라루스 등 다양한 국적의 연주자들, 현재 한국의 전문연주단체에 소속된 솔로리스트들로 구성된 오로라 챔버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우리 귀에 친숙한 곡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 지휘/로만 본더
- 연주/오로라 챔버오케스트라
- 협연/안톤 콘드라텐코(첼로), 보리스 클라브 초프(바이올린), 나디아 코자키에크(보컬)

2020 제1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염원, 하늘에 닿다 Long for Peace
 메인콘서트IV '영감 Spiritual'

일 시 | 9월 2일 수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문 의 |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로만 본더가 지휘하는 BMIMF 페스티벌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바장조'를 비롯해 가르델 '여인의 향기' OST, 벨라스케스 '베사메무초', 엔니오 모리코네 '시네마천국' OST, 브람스 '헝가리 춤곡', 슈베르트 '아베마리아'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협연/보리스 클라브 초프(바이올린), 나디아 코자키에크(보컬), 안톤 보고몰로프(클라리넷)



2020 제1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염원, 하늘에 닿다 Long for Peace
 국제영상음악제

일 시 | 9월 2일(수), 9일(수), 16일(수) 오후 7:3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문 의 |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최정상의 클래식 음악축제 '2020 제1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국제영상음악제. 코로나19로 해외연주자들이 국내에 입국하기 힘든 상황에서 해외 유수 오케스트라 공연을 영상을 통해 만날 수 있는 무

대로, 지난 2018년 음악제에 초청된 헝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2019년 초청단체인 사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역대 음악제 참가팀과 우크라이나 국립 오케스트라, 노르웨이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새롭게 소개한다. 특히 음악제 오프닝 무대에서는 이탈리아 알바 뮤직 페스티벌과의 MOU를 통해 알바 뮤직 페스티벌에서 공연한 작품을 소개한다.

2020 제1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염원, 하늘에 닿다 Long for Peace
 메인콘서트V '꿈 Dreaming'

일 시 | 9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문 의 |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로만 본더가 지휘하는 오로라 챔버오케스트라 연주로, 알렉산더 노술(기타), 빅터 데미야노프(피아노), 알렉산더 노술(기타), 티나(보컬)가 출연, 관객과 음악으로 하나되는 시간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바흐/피아노 협주곡 라단조 1악장
 하워드/Fly Me to the Moon
 모차르트/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1악장
 스트라우스/라데츠키 행진곡 등 수곡



연극

연극 **미스터 일간이**

일 시 | 4월 15일(수)-8월 30일(일) 화-금 오후 5:00, 7:00, 토요일 오후 2:30, 5:00, 7:30 (일-공휴일 오후 2:30, 5:00,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전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전율을 게 없는 두 남자의 검은 비리 컨택션의 한 판 승부 연극 '미스터 일간이'.

원하던 교사 임용 한달을 앞두고 있는 재혁, 공중파 출신 무명 개그맨 강민, 동시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두 남자는 신약이 개발되었다는 증권의 짜라시를 접하지만 기업이 이윤을 위해 출시일을 늦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결국 둘은 제약회사 금고에 숨겨진 신약을 털기를 결심하는데...

- 출연/이재영, 박한일, 오승현, 박강록, 허진, 김수령, 손수경· 바이올린/정다희

연극 **검은 스님들**

일 시 | 5월 15일(금)-10월 1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5:00(월-수요일 공연없음)

초콜릿팩토리

입장료 | 평일 1만2천9백원
 주말-공휴일 1만6천9백원

문 의 | ㈜위너스아트컴퍼니 070-7576-1086



19금 섹시 호러 코미디의 대명사 연극 '검은 스님들'.

빈약한 살림 덕에 절벽 위에 부도사를 지은 스님들, 소위 잘 나가는 옆 동네 세용사처럼 우리도 꼭 성불을 이루자며 머리를 맞대 보지만, 밤만 되면 나타나는 묘령의 여자 귀신 때문에 연일 스님들의 기가 빨려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 없다며 전면 승부에 나서는 스님들,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 귀신과 한판 대결을 펼치는데...

연극 '검은 스님들'은 웃기지만 무섭고 야한 새로운 장르의 성인 연극이다.

심리스릴러 연극 새빨간 거짓말

일 시 | 7월 31일(금)-8월 16일(일) 평일 오후 8:00, 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의 | (주)플레이더 부산 1600-0316



한여름 무더위를 날리는 오감을 자극하는 스릴러극 '새빨간 거짓말'. 완벽주의 성격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주인공 이유리, 어느날 그녀의 신체가 날카로운 흉기로 상해를 입게 된다. 유리에겐 빼앗긴게 많아 그녀를 증오하는 친구 소연, 그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남자친구 민호 등 그녀의 주변인들은 모두 그녀에게 복수를 꿈꾸고 있었는데... 과연 이들 중 범인은 누구이며 그녀의 잘린 신체는 왜 사라졌을까. 연극 '새빨간 거짓말'은 탄탄한 스토리와 예측불가능한 전개로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짜릿한 시간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연극 연애하기 좋은 날

일 시 | 7월 16일(목)-9월 13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연애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로맨틱 코미디극 '연애하기 좋은 날'. 가벼운 교통사고로 병원한 입원한 지후는 같은 병실에 입원한 전 여자친구 시연을 만나지만 그녀는 어떤 일인지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다. 지후는 과거 자신이 어떤 남자친구였는지 궁금해져 호기심으로 시연과 대화를 하게 되고 그녀의 기억 속에 자신이 쓰레기로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연극 '연애하기 좋은 날'은 대한민국 남녀라면 누구나 겪었을 현실연애를 코믹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뮤지컬 나는 독립군이 아니다

일 시 | 7월 29일(수)-8월 9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7:00, 일요일 오후 2:00, 7:00(평일 및 일요일 오후 7:00 공연은 단체관람으로 예매 마감)

입장료 | 전석 4만원
문의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780-6060



부산지역 예술가가 제작한 '부산 뮤지컬'로 화제가 된 뮤지컬 '나는 독립군이 아니다'. 2019년 부산문화재단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나는 독립군이 아니다'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이며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되묻는다.
• 예술감독/오세민 • 드라마트루/전주협
• 작, 연출/차승호 • 작곡/이영재
• 출연/박찬영, 김인하, 박솔기, 김도한, 이혁우, 박준수, 문석중, 남동훈, 조한별, 김민정, 이경만, 김경민

2020 제3회 작강 연극제

일 시 | 7월 30일(목)-8월 16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나다소극장, 하늘바람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전화-인터넷 예매시 1만4천원, 부산연극제-작강연극제 통합관람권 5만원)
문의 | (사)부산연극협회 645-3759, www.bstheater.or.kr



'작지만 강하게'를 컨셉으로 소극장 무대에서 2~3인의 배우들이 뜨거운 열정을 쏟아내는 특별한 연극페스티벌 '2020 제3회 작강 연극제'.
극단 사계 '잘자요 엄마' 7월 30일(목)-31일(금) 오후 8:00, 8월 1일(토) 오후 5:00 나다소극장

자살을 하려는 딸과 이를 어떻게든 막으려는 엄마. 아이러니한 두 사람의 대화와 행위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부조리한 삶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 작/마샤 노먼 • 연출/김만중

극단 따뜻한사람 '너녀들' 8월 2일(일) 오후 5:00, 3일(월)-4일(화) 오후 8:00 하늘바람소극장
마담으로의 지위 상승을 꾀하는 두 하녀 쓸량주와 콜레르. 마담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자신의 죽음을 통해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인간 사회의 계급주의를 돌아볼 수 있다.
• 작/장 주네 • 연출/허서민

극단 에저또 '페르소나' 8월 4일(화)-6일(목) 오후 8:00 나다소극장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만드는 삶, 나는 누구인가? 무의식속 내가 원하는 삶이 드러나 나를 지배한다. 숨겨두었던 나의 자아가 타인에 의해 발견되기 시작하고 페르소나를 통해 서로의 욕구를 충족해나간다.
• 작/김지연 • 연출/최재민

극단 드렁큰씨어터 '최저인간' 8월 7일(금) 오후 8:00, 8일(토)-9일(일) 오후 5:00 하늘바람소극장
전 세계를 잠식한 전염병으로 인해 인구 대부분이 괴물이 되었다. 전 세계가 초도화된 순간에도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신진 연출가 윤준기의 작품.
• 작, 연출/윤준기

극단 아이컨택 '룸메이트' 8월 9일(일) 오후 5:00, 10일(월)-11일(화) 오후 8:00 나다소극장
누군가에게 평범하지 않을, 그러나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 티격태격 속에서도 응원과 따뜻함을 잃지 않는 작품.
• 작/백규진 • 연출/박용희

극단 자유바다 '나의 정원' 8월 13일(목)-14일(금) 오후 8:00, 15일(토) 오후 5:00 하늘바람소극장
80년 광주에서 군인관으로 있었던 한 남자, 사랑하는 이를 군대에서 죽음으로 떠나보낸 한 여자. 이들은 한 가정을 이루고 '나의 정원'이라는 가정을 평화롭고 완벽한 곳으로 만들고자 하지만 각자의 트라우마로 인해 서서히 파괴되어 간다.
• 작, 연출/정경환

공연예술 전위 '고모령에 달 지고' 8월 14일(금) 오후 8:00, 15일(토)-16일(일) 오후 5:00 나다소극장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고모령'이라는 선술집을 배경으로 그 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 서로 의지하고 이해하며 화합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깨달음을 주는 작품.
• 작/이상용 • 연출/전승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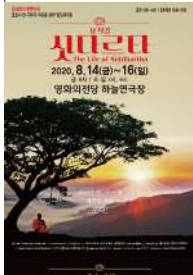
뮤지컬 '씻다르타'

일 시 | 8월 14일 금요일 오후 8:00, 15일-16일 토-일요일 오후 2:00, 6: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VIP 12만원, R석 10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문의 | (주)엠에스엠시 1661-4191



2,600년 전 인류 최초로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전하는 뮤지컬 '씻다르타'.

뮤지컬 전문 제작사 (주)엠에스엠시가 제작한 '씻다르타'는 인도 아대륙에서 왕자로 태어나 전륜성왕의 길을 버리고 새로운 구도의 길에서 깨달음을 얻은 붓다의 이야기로, 야소다라를 신부로 맞이 하던 19세의 그날, 출가를 결심하던 29세의 그날, 깨달음을 얻은 35세의 그날 등 그의 운명을 바꾼 3번의 그날을 주제로 펼쳐진다.

- 대표 프로듀서/김면수 • 연출/성천모
- 작곡, 음악감독/조범준
- 안무/최인숙

명품마당놀이 '신뽕파전'

일 시 | 8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매년 매진행렬을 선보이고 있는 국립극장 마당놀이 '신뽕파전'.

국립창극단의 주연배우 서장금, 이광복을 비롯해 김학용, 명창 박자희 등 국립극장 주, 조연들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호녀 심창'을 새롭게 각

색, 심봉사, 뽕덕, 황봉사가 함께 부산여행을 간다는 구성을 시작으로 해학과 풍자가 가미된 신명나는 놀이판이 펼쳐진다.

특히 희노애락을 담은 탄탄한 줄거리 속에 최고 실력을 갖춘 국악 챔버 오케스트라와 한국무용단, 사물놀이 연희단과 함께 출연, 춤과 노래, 무용, 사물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가 실 새 없이 펼쳐진다.

- 지휘/김성우 • 연주/중앙국악환희악단
- 사물놀이/강성현 연희놀이패
- 춤/평인무용단

뮤지컬 빨래

일 시 | 8월 15일 토요일 오후 2:00, 6: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2만원(14세 이상 관람가)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네 이야기를 진솔하고 유쾌하게 그려내어 관객들에게 웃음과 눈물,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감성 뮤지컬 '빨래'.

'빨래'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나영'과 몽골 이주 노동자 '솔롱고'를 중심으로

힘들고 먹먹한 서울살이 속에서 그에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는 등장인물을 통해 감동을 선사한다.

지난 2003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공연으로 첫 선을 보인 후 2005년 제11회 한국 뮤지컬 대상 작사/극본상, 2017년 제6회 예그린 어워즈 예그린 대상을 수상하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 받았으며, 지금까지 4,900회가 넘는 공연 횟수를 기록하며 80만 관객과 만났다.

방방곡곡 민간우수공연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일 시 | 8월 18일 화요일 오전 10: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10인이상 단체 5천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독일 작가 베르너 홀츠바르트의 베스트셀러 동화를 원작으로, 어린이의 사고력과 관찰력을 키워주는 어린이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땅속에 사는 두더지가 어느 날 땅 위로 고개를 내밀다가 똥 세례를 받는다. 두더지는 벌인을 찾기 위해 동물들을 찾아가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라며 자기 머리에 떨어진 똥이 누구 것인지 묻는데...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이야기와 신나는 율동,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우수공연작, 여수세계박람회 공식 초청작 등으로 선정된 바 있다

어린이 창작뮤지컬

캣츠 이야기 ·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일 시 | 8월 30일 일요일 오후 4:00, 6: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편쌍엔터테인먼트 010-3432-0523



뮤지컬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자신감과 집중력, 협동심을 키워주고 있는 편쌍엔터테인먼트가 어린이들과 함께 마련한 창작뮤지컬.

예술감독 신린과 지도강사, 어린이 배우들로 구성된 편쌍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년간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난타', '뮤지컬의 유령' 등 어린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려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길고양이와 집고양이의 우정을 그린 '캣츠 이야기'와 세상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담은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등 두 편의 창작뮤지컬을 선보인다.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일 시 | 9월 4일 금요일 오후 8:00, 5일-6일 토-일요일 오후 2:00, 6:3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VIP석 14만원, OP석 13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문의 | (주)월드뮤지컬컴퍼니 1566-5490



경쾌한 탭 소리와 화려한 볼거리로 월드클래스 쇼뮤지컬의 교과서로 손꼽히며 많은 사랑을 받아온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지난 1980년 뉴욕 윈터가든 극장 초연 이후 5,000회 이상 공연, 토니상 9개 부문 수상으로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은 '브로드웨이 42번가'는 1996년 국내 초연 이후 많은 스타들을 배출하며 압도적인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해왔다.

2018년에 이어 2년만에 돌아온 이번 무대에서는 초호화 캐스팅과 더불어 화려한 무대와 의상, 재즈풍의 경쾌한 스윙 음악과 압도적인 군무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무용

가족발레 거인의 정원

일 시 | 8월 1일 토요일 오후 2: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2만원(4세 이상 관람가)
 문 의 | 김옥련발레단 626-9486



동화로 함께 보는 가족발레 2020 숲속발레 '거인의 정원'.

오스카 와일드의 동명의 동화를 원작으로 한 '거인의 정원'은 창작활동을 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 발레단체인 김옥련발레단의 창작발레로, 친숙한

동화를 바탕으로 교육성과 예술성을 각색시킨 국내 최초, 최장기 가족발레로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욕심 많은 거인이 맑고 순수한 아이들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통해 자연 사랑, 생명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인의 정원'은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숲 속 동물 친구들을 비롯해 거인과 집사, 숲의 정령, 나비, 꽃이 등장해 흥미진진한 전개를 보여 준다.

2020 춤추는남자들

일 시 | 8월 6일 목요일 오후 7:30, 7일 금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춤추는남자들 집행위원회 010-9350-5273



보기 드문 남성 춤꾼들의 지역 전통춤, 창작춤의 맥을 잇고 춤과 대중과의 거리를 없애고자 매년 마련해온 '춤추는남자들' 2020년 무대.

지난 2003년 시작된 후 부산의 향토적 브랜드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

아온 '춤추는남자들'은 올해 17주년을 맞아 기존 한차례 가져오던 춤판을 창작춤판과 전통춤판, 두차례로 나누어 공간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지역간, 세대간의 간극을 좁히고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과 소통을 꾀한다.

올해 무대에서는 국립국악원 무용단 예술감독을 지낸 이진호, 부산시립무용단 상임단원 강모세, 동해누리 예술감독 우진수, 서울시무용단 수석 한수문, 놀이패 새터 대표 이강용, 전 부산시립

무용단 예술감독 홍기태, 진주탈춤마당 예술감독 강동욱, 국립국악원 무용단 안무자 최병재, 춤꾼이자 마당극 연출가로 활동중인 남기성 등이 출연한다.

6일(목) 창작춤판
 하시마(端島) 엘레지(춤/신상현)
 주야(춤/박광호)
 조용한 기적(춤/박재현)
 사자·Who(춤/이용진, 강건, 김유성)

7일(금) 전통 춤판
 여는 춤 허튼병신춤(춤/정승현)
 쌍 처용무(춤/이진호, 강모세)
 12차 농악복춤(춤/우진수)

탈굿(춤/황해순)
 도살풀이춤(춤/한수문)
 문동복춤(춤/이강용)
 애련(춤/홍기태)
 양반춤(춤/강동욱)
 가락오광대 말뚝이춤(춤/김경철)
 호걸 양반춤(춤/이진태)
 승무(춤/최병재)
 허튼 덧배기춤(춤/남기성)
 • 연출/김평수(춤 문화연구소 대표)
 • 연주/젊은소리쟁이

2020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마스터피스 시리즈, 클래식을 만나다 발레리나 김주원 I

일 시 | 8월 11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발레리나 김주원의 해설이 있는 발레 시리즈로 마련되는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8월 무대.

지난 2006년 발레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브누아 라 당스'에서 '최고 여성무용수상'을 받으며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이름을 알렸던 김주원은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로 15년간 정상 자리를 지켰으며,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첫 번째 무대에서는 'Ballet with Cinema'라는 주제로, 김주원의 해설과 함께 영화 '블랙스완', '여인의 향기'에 나왔던 장면과 음악을 갈라무대로 선보인다.

영화

어울림 상설 Series#9 SAC on Screen 영상으로 만나는 호두까기 인형

일 시 | 8월 19일 수요일 오후 7:30
 오후 6:0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장료 | 무료(선착순 전화예매)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화의전당의 우수 예술 콘텐츠를 대형 스크린을 통해 만날 수 있는 'SAC on Screen_호두까기 인형'. 'SAC on Screen'은 UHD 고화질 영상으로 아티스트의 숨결까지 느껴지는 생생함과 10여 대의 카메라로 다각도에서 담아낸

역동적인 화면, 현장감 넘치는 5.1채널 입체 서라운드 음향으로 마치 현장에서 직접 보는 듯한 생생한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호두까기 인형' 버전 중에서도 가장 다채롭고 화려한 춤의 테크닉을 즐길 수 있는 유리 그리가로비치 버전의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을 만날 수 있다.

콘서트

2020 Select shop concert 심센치X데이브레이크

일 시 | 8월 8일 토요일 오후 7:00 KBS 부산홀
 입장료 | VIP석 11만원, R석 8만8천원, S석 6만6천원
 문 의 | (주)엠플러스 1544-3901

윤도현 단독 공연 2020 ACOUSTIC FOREST

일 시 |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00, 13일 일요일 오후 5: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R석 11만원, S석 9만9천원
 문 의 | (유디온커뮤니케이션 1544-1555

행사

2020 두레라움 토요일외콘서트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야외극장에서 편안하게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재)영화의전당 2020 두레라움 토요일외콘서트.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공연 및 문화행사가 중단되면서 위축된 공연계와

관객들을 위한 힐링콘서트로 꾸며진다. 8월에는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목, 금관악기 연주자들로 결성된 두레라움 윈드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시작으로 온누리오페라단, 동래학춤 공연, 생활문화예술축제가 펼쳐진다
 1일(토) 두레라움 윈드오케스트라(지휘/정두환)
 8일(토) 온누리오페라단
 22일(토) 동래학춤
 29일(토) 생활문화예술축제(*오전 10:00부터 진행)

8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목요일 오전 11:00
 시네바움 교대
 입장료 | 수강료 1만5천원(차, 다과 제공)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 3일(월) 김명우의 마음공부 '반야심경, 그 마지막 이야기'
 · 강사/김명우(철학박사, 불교학자, 동아대 교양교육원 전임교수)
- 6일(목) 목요일의 브런치 '일본 식문화 탄생의 역사적 배경'
 · 강사/공미희(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 연구교수)
- 10일(월) 셰익스피어 이야기 '햄릿:복수의 지연'과 'To be or not to be'(3.156=89) 읽는 방식
 · 강사/김해룡(전 한일장신대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 13일(목) 목요일의 브런치 '정해성의 문화공간: 고통과 치유의 예술 1'
 · 강사/정해성(문학박사, 문화평론가, 문화공간 Raum-Y 대표)
- 17일(월) 사각 사각 생각을 걷다:길의 노래
 · 강사/박창희(경성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스토리랩 수작 대표)



20일(목) 목요일의 브런치 '책과 이야기:모두의 몫을 모두에게(금민, 동아출판사)'
 북 리더와 함께하는 북토크 박태향, 박찬영, 우주호, 이경란
 24일(월) 재즈를 탐하다 '쿨-세상의 모든 음악'

- 강사/이기녕(동대 음악학과 교수, 작곡가)
 27일(목) 목요일의 브런치 '우주호의 동아시아학: 삼국통일전쟁과 백강전투 함께하는 영화 '황산벌'
 · 강사/우주호(동아시아연구소 소장, 행정학박사)
 31일(월) 시네필의 영화 느끼기 '제임스 그레이 감독의 영화 세계:라이프 타임(lifetime)에 관하여'
 · 강사/김영광(영화평론가)

제154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일 시 | 8월 22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알바트로스시낭송문학회 010-6367-0149

정두환의 화요음악강좌 '좋은 음악&좋은 만남' 화요음악회 20년 이야기 3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보수동책방골목 문화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정두환 011-574-0423



2020 제21회 부산문화대상을 수상한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 8월 화요음악강좌는 지난 2003년 3월 부산문화회관 음악감상실에서 시작된 후 올해로 20주년을 맞아 '화요음악회 20년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 마련된다.
 8월 4일(748회) 화음에서 이야기 하였던 우리 시대의 음악 <영화음악 이야기>
 8월 11일(749회) 화음에서 이야기 하였던 우리 시대의 음악 <CF음악 이야기>
 8월 18일(750회) 화음에서 이야기 하였던 우리 시대의 음악 <재즈 이야기>
 8월 25일(751회) 이 달의 책읽기 '동물농장'(조지웰 저)

은누리 디지털 문화원과 함께하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00
 은누리 디지털 문화원
 입장료 | 수강료 1만5천원(차, 다과 제공)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710-0775

- 4일(화) 철학의 명장면 '칸트, 신과 작별하다'
 · 강사/김남호(울산대 철학과 교수)
- 11일(화) 안수현의 미학산책 '바쇼의 하이쿠'
 · 강사/안수현(부산가톨릭대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문학박사, 문학평론가)
- 18일(화) 흑인여성의 페미니즘: 나는 여성이 아닌가?
 · 강사/김보명(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 25일(화) 우리결의 화학이야기:고분자(의식주)와 화학
 · 강사/박찬영(부경대 명예교수, 공학박사)

8월 오페라바움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00, 목요일 오후 1:30 오페라바움
 문 의 | 오페라바움 722-9597



오페라 전문 음악감상실인 오페라바움이 마련하는 8월 영상감상회. 매주 월요일에는 '말러 교향곡 시리즈' 콘서트 실황을, 목요일에는 베르디 오페라 26개 전 작품에 도전하는 '베르디 오페라 시리즈'를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상세한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6일(목) 제8편 알지라, 제9편 아탈라
 13일(목) 제10편 맥베스
 20일(목) 제11편 도적떼, 제12편 해적
 27일(목) 제13편 레나노의 전투

김옥균의 힐링클래식명곡여행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 3개월 15만원
 문 의 |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문화센터
 810-2351~2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음악 공연실황 영상감상회.

프로그램

프로코피예프 '키제중위 모음곡', 라벨 '세헤라자데' 프랑크 '바이올린소나타',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1번'
 파야 '스페인 정원의 밤', 사라사테 '카르멘 환상곡'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 드보르작 현악4중주 '아메리카'
 슈만 피아노협주곡 A단조, 주페 '경기병 서곡' 엘가 '첼로협주곡', 로드리고 '아랑페즈 기타협주곡'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강좌 음악으로 읽는 인문학 시즌 5

일 시 | 8월 11일(화), 8월 25일(화)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음악평론가 각근수의 강의로 진행되는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강좌 '음악으로 읽는 인문학 시즌 5'. 협주곡 시리즈로 마련되는 이번 8월 강좌에서는 11일, 모차르트가 작곡한 40여곡의 협주곡 중 17살 때 쓴 최초의 오리지널 피아노협주곡 제5번을 비롯해 바순협주곡, 바이올린협주곡 등을 당시의 시대 상황과 연계해 소개하며, 25일에는 모차르트 협주곡 중 호른, 하프, 플루트, 클라리넷, 바순 등 희소성을 지닌 작품들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모차르트와 그에게 영감을 준 당시의 비르투오소들을 만날 수 있다.

- 강사/각근수(음악평론가)

2020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영도에서 떠나는 유럽예술여행 해설이 있는 토요일클래식#2 '이탈리아 북부'

일 시 | 8월 22일 토요일 오전 10:0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장료 | 무료(사전 전화신청 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동서대학교 종교음악학과 외래교수로 있는 공연전문 해설가 김성민과 떠나는 '영도에서 떠나는 유럽 예술여행'.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탈리아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김성민은 이탈리아 바티칸 박물관 해설을 1,000회 이상 진행했으며, 2016년 귀국 후에는 음악과 미술, 여행을 주제로 다수 기관에서 강의 및 공연전문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탈리아 북부를 주제로 강의와 공연이 함께 펼쳐진다.

전시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 기획전 Neverland-Lightland 빛과 상상의나라

일 시 | 3월 27일(금)-10월 18일(일)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
 입장료 | 사전예약(1일 10회, 각 30명)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0-2600~1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기념 박종우展 '비무장지대 DM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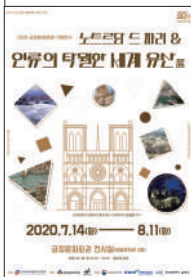
일 시 | 5월 12일(화)-8월 26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고은사진미술관이 마련한 특별한 전시 '박종우展 비무장지대 DMZ'.

휴전협정 이후 일반군인들조차 접근이 금지되었던 역사의 현장인 DMZ를 오랜 세월동안 촬영해 온 박종우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분단의 비극이 어우러진 특별한 작품을 선보인다.

금정문화회관 기획전 노트르담 드 파리 & 인류의 탁월한 세계유산展

일 시 | 7월 14일(화)-8월 11일(화)
 금정문화회관 2층 전시실
 입장료 | 무료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57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힘든 시기, 전 세계 문화유산을 찾아 떠나는 특별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20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금정문화회관과 문화예술관광진흥연구소가 협력하여 개최하는 이번 전시는 전 세계 문화유산을 보고 느끼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자리로, 여름휴가와 방학을 맞은 가족들이 전시로나마 세계여행을 떠날 수 있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월요일 휴관)
- 도슨트/오후 1:00, 2:00, 3:00(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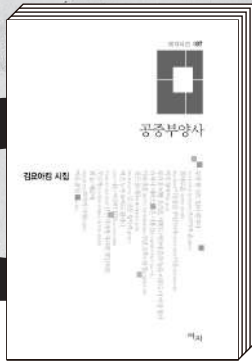
영도문화예술회관 기획전 S.N.A. EXHIBITION 27 전미 초대전 'Paper Sea(1992, 여름)'

일 시 | 8월 7일(금)-8월 30일(일)
 영도문화예술회관 선유갤러리
 입장료 | 무료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계원조형예술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하고 2006 히로시마 국제 애니메이션에서 은상을 수상한 작가 전미 초대전. 그동안 종이와 물감, 그 외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자르고 오리고 붙이고 다시 채색하는 방법으로 자연을 화폭에 담아온 전미는 이번 전시에서 'Paper Sea(1992, 여름)'라는 타이틀로 어린 시절, 여름휴가 영상이 담긴 비디오테이프에서 가져온 작가의 1992년 기억을 펼쳐보인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



공중부양사

김요아킴 지음 / 애지
142p /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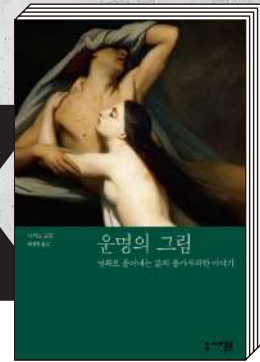
부산에 살며 시를 쓰는 김요아킴 시인의 여섯 번째 시집. 2003년 등단해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쳐온 그의 시세계는 삶에 대한 진지한 응시와 성찰이 단단한 바탕이 되고 있다. 그 위에서 사회적 쟁점이 발생하는 고비와 길목마다 시인으로서의 현실참여와 문학적 응답을 회피하지 않았다. 이번 시집에서도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과 일상의 시공간을 씨줄 날줄로 엮어 보여준다. 때로는 가혹한 현실을 관통하는 사람들을 위해 통증 깊은 서사와 서정을 시에 담았다. 그 시가 독자들에게 삶의 안녕을 묻는다. 김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 우리시대의 문학적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이 시집은 부산 북구 금곡동에 특별한 생명을 부여했다. 3, 4부의 시편을 구성하는 '금곡동 아파트 연작'이다. 금곡동은 도시 개발과 자연 파괴가 이뤄졌던 공간이지만, 시인에게 고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생의 배움을 얻는 장소이기도 하다. 시인은 이 연작시편에서 사라지고 잊힌 풍경을 노래하며 현대인의 소외 의식과 장소 상실감을 표현한다. 표제작 '공중부양사'는 아파트 외벽 창문을 청소하는 노동자를 그린다. 시인은 노동자의 삶을 통해 생활과 존재의 흔들림 속에서도 버티고 견뎌내야 할 삶의 가치를 상기시킨다.



연필

헨리 페트로스키 지음, 홍성림 옮김
서해문집 / 600p / 2만 2천원

“예술과 과학의 확산에 이것처럼 기여한 물건도 없으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고, 날마다 그 이름이 불리는 물건도 드물 것이다.” 이것이 수수께끼라면 무엇이 답일까. 정답은 연필이다. 위의 문장은 독일의 한 연필회사 광고 문구이다. 연필은 작고 사소한 도구지만 가장 넓은 세계를 만들어냈다. 연필은 일상 속에서 너무도 흔한 물건이라서 만만하다. 디지털 세상이라 그 존재를 가끔 잊기도 한다. 하지만 연필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사람조차 연필을 가지고 있다. 미국 듀크대 토목공학과 석좌교수인 저자는 그 만만한 연필이 술한 발명과 기술 발전의 밑거름을 묵묵히 그려냈다고 주장한다. 공학자들은 연필로 스케치하는 사람들이었다. 잉크로 쓴 글이 후세에 오래 전해진 것과 달리 대개 후세에 전해지지 않은 그 스케치들이야말로 문명 설계도라는 것이다. 저자는 그런 의미에서 현대의 기술 문명은 어느 정도 연필로 그려낸 것이라고 본다. 인류의 필기 방법부터 시작해 흑연의 기원, 연필심의 삽입, 지금까지도 친숙한 이름인 ‘파버’ ‘슈테틀러’ 가문의 등장으로 연필이 가내수공업에서 산업으로 성장하게 된 과정, 최고의 연필을 둘러싼 경쟁 등 연필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의 역사를 담았다.



운명의 그림

나카노 교코 지음, 최재혁 옮김
세미콜론 / 232p / 1만 5천원

화가 장 레옹 제롬(Jean-Leon Gerome)의 ‘아래로 내린 엄지(Pollice Verso)’는 로마 제국 검투사의 손 막히는 결투 장면을 담은 그림이다. 황제의 손가락 하나로 검투사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을 그린 작품이다. 영화감독 리들리 스콧은 이 그림을 보고 영화를 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림이 영감을 준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글래디에이터’이다.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해 다양한 부문의 상을 휩쓸며 대성공을 거둔 블록버스터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탄생은 검투사의 운명적 장면을 담은 그림에서 시작됐다. 이쯤 되면 운명적인 그림이 아닐까. 운명의 결전, 운명의 만남, 운명의 사랑, 운명의 선택, 운명의 사건... ‘운명’은 인간의 다양한 인생사를 단번에 포괄할 수 있는 말이며, 동시에 극적인 긴장감을 부여한다. 예술 교양서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무서운 그림’ 시리즈의 저자 나카노 교코는 운명의 다양한 본질과 인간이 운명과 어떻게 싸워 왔는가에 주목했다. 영웅의 선택, 국가의 장래, 역사의 갈림길, 자연 재해의 결과 등 저자는 운명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23점의 주요 그림을 통해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그림에 얽힌 매력적인 이야기가 미술에 관한 흥미를 불러 일으킨다.

BNK부산은행 지원금 전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기금으로 사용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이용관)은 지난 6월 30일 부산문화회관 접견실에서 열린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금 전달식'에서 BNK부산은행(은행장 반대인)으로부터 지원금 3천만원을 전달받았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이번 지원금을 '2020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용관 대표이사는 이번 지원금 전달식에서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과 BNK부산은행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기관과 금융기관으로 앞으로도 부산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수행에 함께 힘써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재)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은 매년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이 참여하여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실내악의 향연을 펼쳐왔다. 특히 올해는 8월 15일부터 28일까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을 위해 '음악, 치유를 위한 8가지 레시피(생명·도전·행복·용기·민음·낭만·열정·희망)'라는 주제로 음악을 통한 힐링의 무대를 선사한다.

2020년도 공연장 전문인력 양성사업

BSCC 인재양성 1기 교육 실시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공연장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아카데미를 7월부터 진행한다. 올해부터 시도되는 '공연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재)부산문화회관이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국제아트센터 등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공연장 운영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전문교육 및 실습을 통해 지역사회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기획인력, 무대예술 전문인 등 두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아카데미 개강에 앞서 지난 5월, 부산 거주 만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했으며 서류와 필기,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된 24명의 교육생이 7월 17일부터 교육을 받고 있다. 문화행정, 공연장 조성, 공연장 안전실무, 무대기술, 기획 등 공통교육이 8월 7일까지 총 5차례 진행되며 부분별 전문교육은 8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6차례 진행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10월부터 8주간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의 각 부서에 배치되어 실제 공연장 운영 및 기획 업무에 대한 실무실습을 받게 된다. 이번 '공연장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전 교육과정은 무료로 진행된다. 한편, 올해 사업을 통해 배출된 전문인력들은 내년 2단계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공공 공연장의 파견도 추진하고 있다.

2020년도 문화예술 힐링아카데미 '어린이 문화교실' 개최



(재)부산문화회관이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하는 2020년도 문화예술 힐링아카데미 '어린이 문화교실'이 8월 3일 개강한다. '어린이 문화교실'은 어린이 성장발달 시기에 맞춘 눈높이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으로, 오페라의 대표적인 장르인 오페라, 뮤지컬, 발레를 체험할 수 있다. '어린이 오페라 교실(초등학교 4학년~6학년)'과 '어린이 발레 교실(초등학교 1학년~3학년)'은 8월 3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 뮤지컬 교실(초등학교 4학년~6학년)'은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총 5일간 펼쳐진다. '어린이 문화교실' 참가 신청은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극장장의 손 편지 ⑱

'문화회관'이란 이름 생각해 보기

(재)부산문화회관 대표 이용관

2005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내 이름은 김삼순>이란 TV 드라마가 있습니다. 두 언니 밑으로 셋째 딸로 태어난 주인공은 할아버지가 아들 손주 못 본 분풀이로 아무렇게나 지어준 '삼순'이라는 이름이 싫어 '희진'이란 이름으로 끊임없이 개명을 원합니다. 김삼순과 김희진, 사람은 같은데 이름에 따라 왠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프랑스 제과 유학을 다녀와 '파티셰'라는 전문직에 종사하던 주인공에게 더 어울리는 이름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의 이름이나 사물의 명칭은 지칭되는 대상에 대한 인상을 좌우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전문성에 대한 느낌까지 담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호에서는 부산시민회관의 역사에 관하여 손편지를 썼는데요, 이번에는 '시민회관'과 '문화회관'이란 이름에 관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침 이 문제가 지난 7월 부산시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제기가 되었으므로(행정문화위원회 최도석 부위원장) 본격적으로 공론화해보자는 의도도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은 원래 일본식 이름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최초의 국립극장으로 사용했던 지금의 서울시 의회건물은 일본식 이름인 부민회관(府民會館)이었습니다. 또 우리보다 20여 년 정도 먼저 건립되기 시작한 일본의 공공공연장 명칭에는 지금도 '공민회관(公民會館)'이 많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여 누군가가 1962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관한 '서울시민회관(市民會館)'의 작명에 참고했겠지요. 뒤이어 건립된 전국 시민회관들이 따라갔을 것이고요. 행정구역의 명칭에 따라 구민회관, 군민회관, 심지어 읍민회관이란 시설이 아직 남아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무슨 고깃집이냐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 이 곳들은 다목적 다중집합시설로, 공연도 하지만 주로 대관에다 무료공연이 많았고, 여기에 영화나 일반행사, 정치 행사, 심지어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장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와 함께하는 제2회 창작대본 공모전



공모개요

COLLUSION SUMMARY

- ✓ **공모목적**
 - 부산 예술 발전을 위한 공연 제작지원 및 제작기회 제공
 - (재)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의 공공지원 사업 확대
- ✓ **공모부문**
창작음악극(국악음악극 포함), 희곡, 무용극 등 3개 부문
- ✓ **신청자격**
예술인을 포함한 예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 가능
※ 나이·지역·분량 제한 없음, 부산 관련 창작대본에 한함
- ✓ **유의사항** ※ 공고일 현재 아래 해당 시 신청할 수 없음
 -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지면에 발표된 작품
 - 공연된 작품
※ 학내공연, 학내워크숍, 쇼케이스는 미발표 작품으로 간주
 - 타 지원사업 선정 작품
※ 신청 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문예진흥기금 등 중복 지원받는 사업
 - 원작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작품
 - 심사위원회에서 발표된 공연으로 간주하는 작품
- ✓ **최종선정 대상 작품은 (재)부산문화회관과 계약체결 후 제작 지원가능**
※ 계약 시 필요서류 제출

수상내용

AWARD CONTENT

- ✓ **창작음악극(국악음악극 포함), 희곡, 무용극 등 부문별 수상(총 3명)**
 - ※ 수상자에게는 상금(각 700만원), 트로피 수여
 - ※ 수상작 중 1편을 선정, 제작지원 (회관 사정에 따라 1편 이상 제작 예정)
 - ※ 해당분야 선정작 없을 시 해당분야 없음으로 공지 가능

심사방법

SCREENING METHOD

- ✓ **심사위원회를 통한 창작극 대본 심사(분야별)**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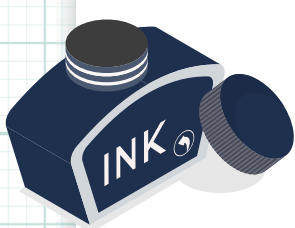
APPLY

- ✓ **공고기간** : 2020. 6. 24.(수)~12. 15.(화)
- ✓ **접수기간** : 2020. 10. 20.(화)~12. 15.(화)(57일간)
- ✓ **접수방법** : 이메일(mlee78@bscc.or.kr) 접수
※ 3일 이내 접수회신메일 미수신시 반드시 확인필요
-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해당대본, 기타보완자료 (CD/DVD, 악보 또는 음원파일, 추가자료 등 필요시 제출)
※저작권 관련 계약서(선정작에 한해 필요시 제출)

문의

QUESTION

-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팀(607-6121)**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와 함께하는 제2회 부산 청소년 및 시민 공연감상문 공모전



공모개요 COLLUSION SUMMARY

- ✓ **공모목적**
· 부산지역 시민들의 문화향유 및 참여기회 제공을 통한 부산 문화 진흥
- ✓ **공모부문**
(재)부산문화회관 시즌프로그램 중 작품 1편 이상 관람 후 감상문 작성(200자 원고지 16~20매 분량 / 글자크기 11포인트, 행간 160%로 작성 / 형식 상관없음)
- ✓ **신청자격**
부산 소재 중·고교 재학생, 대학생, 일반 시민

수상내용 AWARD CONTENT

- ✓ **중·고등부(9명)**
대상(교육감상) 30만원 1명 / 최우수상 20만원 3명 / 우수상 10만원 5명
- ✓ **일반부(6명)**
대상(부산광역시장상) 50만원 1명 / 최우수상 30만원 2명 / 우수상 20만원 3명
- ✓ **부상 : 회원권(5만원 상당)**
※ 수상자에게 상금, 트로피 및 부상 수여
※ 일반부 대상(부산광역시장상)은 변경될 수 있음
※ 해당분야 선정작 없을 시 해당자 없음으로 공지 가능

심사방법 SCREENING METH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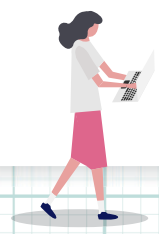
- ✓ 공개모집을 통한 심의

신청방법 APPLY

- ✓ **공고기간** : 2020. 6. 24.(수)~11. 30.(월)
- ✓ **접수기간** : 2020. 10. 20.(화)~11. 30.(월)(42일간)
- ✓ **접수방법** : 이메일(mlee78@bscc.or.kr) 접수
-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해당감상문
※ 응모작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주관 기관의 소유이며, 부산문화회관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등 자료에 사용될 수 있음
- ✓ **결과발표**
2020년 12월 중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공지

문의 QUESTION

-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팀(607-6121)



(재)부산문화회관 2020-21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연극/뮤지컬

착한 여우들의 유쾌한 반란!

<여자만세 2>

시민 | 소극장 5.28.(목) 3:00pm, 7:3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 패키지 제외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햄릿>

문화 | 중극장 5.30.(토) 3:00pm
All Seats 20,000원



2020년 창작뮤지컬 최고의 화제작

뮤지컬 <팬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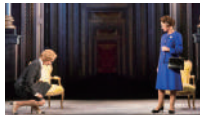
문화 | 대극장 6.12.(금)~6.14.(일)
금 7:30pm 토 3:00pm, 7:00pm 일 3:00pm
R 88,000원 S 66,000원
* 패키지 제외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디 오디언스>

문화 | 중극장 6.27.(토) 3:00pm
All Seats 20,000원



'그래, 삶이란 이런 거지'

<여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

시민 | 소극장 7.31.(금)~8.1.(토) 금 7:30pm 토 3:0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연극계 황금콤비 김광보 연출 & 고연옥 작가 신작

<결혼> 부산문화회관·대전예술의전당 공동제작

문화 | 중극장 9.18.(금)~9.20.(일) 금 7:30pm
토일 3:00pm /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셰익스피어의 열두밤 이야기

<십이야(十二夜)>

시민 | 소극장 9.26.(토)~9.27.(일) 3:0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발레 / 무용

원작자 '셰익스피어'가 나타났다!

서울발레시어터 <한여름 밤의 꿈>

문화 | 중극장 7.25.(토)~7.26.(일)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거대한 스윙제즈 클럽의 열기 속으로!

국립현대무용단 <스윙>

문화 | 대극장 8.28.(금) 7:3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부산문화회관 & 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 / 리옹댄스비엔날레 공동제작

안온미 컴퍼니 <A-드래곤> [정정연기]

문화 | 중극장 12.4.(금)~12.5.(토) 금 7:30pm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클래식

프렌치 베토베니언의 베토벤 소나타

프레데리크 기 리사이틀 [취소]

문화 | 챔버홀 6.16.(화) 7:30pm
All Seats 30,000원



압도적인 재능과 타고난 음악성!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취소]

시민 | 대극장 7.15.(수) 7:30pm
R 110,000원 S 80,000원 A 50,000원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베토벤 스페셜리스트의 귀환
루돌프 부흐빈더 &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취소]

문화 | 대극장 9.25.(금) 7:30pm
V 120,000원 R 90,000원 S 60,000원 A 30,000원



오스모 벤스케 지휘 x 이지운 협연

서울시립교향악단 2020 내셔널 투어

문화 | 대극장 10.30.(금) 7:30pm
V 70,000원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Adieu 2020 & Happy New Year 2021

2020 제야음악회

문화 | 대극장 12.31.(목) 10: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패키지 제외



새해를 여는 천상의 소리

빈 소년 합창단 2021 신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1.1.23.(토) 5:00pm
R 50,000원 S 30,000원 A 10,000원 * 패키지 제외



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

문화 | 중극장 2021.2.21.(일) 5:00pm
R 50,000원 S 30,000원 A 10,000원



마티네 콘서트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나의 기타 이야기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

문화 | 중극장 4.24.(금) 11:00am
All Seats 10,000원 ▶ 무관객 온라인 생중계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동요, 클래식이 되다 <피아니스트 박종화>

문화 | 중극장 5.29.(금) 11:00am
All Seats 10,000원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바이올린 로망스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문화 | 중극장 7.31.(금) 11:00am
All Seats 10,000원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드라마틱 플루트 <플루티스트 필립 운트>

문화 | 중극장 8.28.(금) 11:00am
All Seats 10,000원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베토벤, 영웅이 되다 <피아니스트 홍민수>

문화 | 중극장 10.30.(금) 11:00am
All Seats 10,000원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오페라, 재즈가 되다 <바리톤 이응광>

문화 | 중극장 12.8.(화) 11:00am
All Seats 10,000원



오페라

부산오페라하우스 성공건립
2020 부산오페라 Week * 패키지 제외

문화 | 대극장 & 중극장 10.10.(토)~10.18.(일)
평일 7:30pm 주말 및 공휴일 5:00pm
V 10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BSCC 우수레퍼토리 앙콜공연
오페라 <리골레토> * 패키지 제외

문화 | 대극장 2021.2.26.(금)~2.27.(토) 7:30pm
V 10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국악 / 창극

세계를 누비는 컨템포러리 국악 그룹
블랙스트링 ▶ 무관객 온라인 생중계

시민 | 소극장 4.23.(목) 목 7:3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원작보다 강하다!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찌고 옹녀>

문화 | 대극장 7.17.(금)~7.18.(토) 금 7:30pm 토 3:00pm
V 70,000원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킹스턴 루디스카 x 연희컴퍼니유희
유희스카

문화 | 중극장 11.5.(목) 7:30pm
R 30,000원 S 20,000원



콘서트 / 탱고

피아졸라 탱고 앙상블의 진수
아스토르 피아졸라 퀸텟 콘서트 [취소]

문화 | 중극장 9.24.(목) 7:3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감동을 넘어선 마법의 시간
2020 디즈니 인 콘서트

시민 | 대극장 9.27.(일) 5:00pm
V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Hopeful Tomorrow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 패키지 제외

문화 | 대극장 11.26.(목) 7:3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B 20,000원



“응답하라 1988” 드라마 OST 오리지널 밴드
<동물원 콘서트>

시민 | 소극장 12.4.(금)~12.5.(토) 금 7:30pm 토 5:00pm
R 55,000원 S 44,000원 * 패키지 제외



무적전설
이승환 30주년 콘서트 * 패키지 제외

시민 | 대극장 12.19.(토)~12.20.(일) 토 6:00pm 일 5:00pm
V 154,000원 R 132,000원 S 110,000원 A 99,000원



아트서커스

한 편의 완벽한 서커스 드라마
세븐 핑거스 <여행자> [취소]

문화 | 대극장 6.12.(금)~6.13.(토) 금 7:30pm 토 3:00pm
V 80,000원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지역프로젝트

한여름밤의 실내악 축제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챔버페스티벌>

문화 | 중극장 & 챔버홀 8.15.(토)~8.29.(토)
평일 7:30pm 주말 및 공휴일 5:00pm
All Seats 20,000원 * 패키지 제외



부산 신진예술 페스티벌 최우수작
<토장군을 찾아라>

문화 | 중극장 9.3.(목)~9.5.(토)
목-금 10:30am, 1:30pm 토 11:00am, 2:00pm
R 30,000원 S 20,000원 * 패키지 제외



부산문화재단 공동기획
2020 부산 브랜드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선정작

문화 | 중극장 11.14.(토)~11.15.(일) 3:00pm
R 30,000원 S 20,000원 * 패키지 제외



부산문화재단 공동기획
2020 부산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사업 선정작

문화 | 중극장 11.28.(토)~11.29.(일) 3:00pm
R 30,000원 S 20,000원 * 패키지 제외



어린이 / 가족

범인을 찾아라!
<프랭키와 친구들> [취소]

문화 | 사랑채 7.1.(수)~8.2.(일) 11:00am
(월-수 공연없음) All Seats 20,000원 * 패키지 제외



극단 학전 & 김민기 연출의 스테디셀러 가족극
<우리는 친구다>

시민 | 소극장 7.3.(금)~7.4.(토) 금 10:00am
토 11:00am, 3:00pm / R 30,000원 S 20,000원



어린이 전래동화 뮤지컬
<방귀쟁이 며느리> [취소]

문화 | 사랑채 8.27.(목)~10.25.(일) 11:00am
(월-수 공연없음) All Seats 20,000원 * 패키지 제외



EBS 번개맨 20주년 기념대작
뮤지컬 <번개맨>

시민 | 대극장 9.12.(토)~9.13.(일)
토 11:00am, 2:00pm, 4:30pm 일 11:00am, 2:00pm
R 60,000원 S 50,000원 * 패키지 제외



세 마리 펭귄의 우정 이야기
<8시에 만나>

문화 | 사랑채 11.10.(화)~12.13.(일) 11:00am
(월-수 공연없음) All Seats 20,000원 * 패키지 제외



부산시립예술단 2020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교향악단 _ 정기연주회

제558회 정기연주회
New Year's Concert
2020 신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1.16.(목)~1.1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59회 정기연주회
French Nuance
프랑스식 뉘앙스 [잡정연기]

문화 | 대극장 2.14.(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0회 정기연주회
Bohemian Groove
보헤미안 [잡정연기]

문화 | 대극장 3.6.(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1회 정기연주회
Baroque to Classical
바로크에서 고전까지 [잡정연기]

문화 | 중극장 3.2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2회 정기연주회
Cheers!
짹! [잡정연기]

문화 | 대극장 4.1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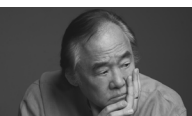
제563회 정기연주회
모호함과 확고함 [취소]

문화 | 중극장 5.15.(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무관객 온라인 생중계 공연인 '미완성음악회'로 대체



제564회 정기연주회
BPO meets Kun-Woo Paik
거장의 레제로

문화 | 대극장 6.19.(금)~20.(토) 금 7:30pm 토 5:0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5회 정기연주회
O Sole Mio
이탈리아 음악휴가

문화 | 대극장 7.21.(화)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6회 정기연주회
Again, R.Strauss! I
부산시향의 슈트라우스 아게인! I

문화 | 대극장 9.23.(수)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7회 정기연주회
unique
개성

문화 | 대극장 10.23.(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8회 정기연주회
Frame
틀

문화 | 중극장 11.10.(화)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9회 정기연주회
Shostakovich's 7th Symphony
부산시향의 쇼스타코비치

문화 | 대극장 11.24.(화)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70회 정기연주회
Beethoven's 250th Birthday in Busan
송년음악회 - 해피벌스데이, 루트비히!

문화 | 대극장 12.17.(목)~12.18.(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교향악단 _ 기획음악회

BPO Thanks Concert
부산시향의 感謝감사 [취소]

문화 | 중극장 2.24.(월)~2.25.(화) 2:00pm
All Seats 5,000원



BPO Open Door Concert
부산시향의 나눔 [취소]

문화 | 중극장 3.26.(목) 11:00am, 4:00pm
All Seats 5,000원



BPO Chamber Music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문화 | 챔버홀 4.29.(수) 7:30pm
All Seats 10,000원
▶ 무관객 공연 온라인 생중계



BPO Family Day
부산시향의 가족음악회

문화 | 대극장 5.29.(금) 7:30pm
All Seats 10,000원



BPO Open Rehearsal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문화 | 중극장 6.17.(수) 7:30pm
All Seats 5,000원



BPO Romantic Night
부산시향의 로망스

문화 | 중극장 7.7.(화) 7:30pm
All Seats 10,000원



BPO Youth Concert
부산시향의 클래식은 내 친구

문화 | 대극장 8.11.(화) 3:30, 7:30pm
All Seats 10,000원



BPO Kids Concert
부산시향의 우리아이음악회

문화 | 중극장 9.10.(목)~9.11.(금) 11:00am
All Seats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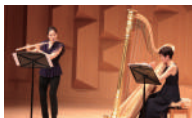
BPO & Young Solists
제7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문화 | 중극장 10.8.(목) 7:30pm
All Seats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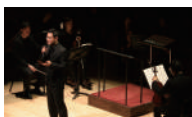
BPO Chamber Music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작

문화 | 챔버홀 10.30.(금) 7:30pm
All Seats 10,000원



BPO Night Lab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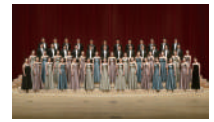
문화 | 중극장 12.9.(수) 9:00pm
All Seats 10,000원



합창단 _ 정기연주회

해설이 있는 현대합창시리즈 II
현대 합창 거장들의 합창세계 [취소]

문화 | 대극장 3.31.(화) 7:30pm
All Seats 10,000원



제179회 정기연주회 및 호국의 달 기념 연주회
이기선 예술감독 취임연주회
이 땅에 기쁨과 평화를

문화 | 대극장 6.26.(금) 7:30pm
All Seats 10,000원



제181회 정기연주회
최석태 부산 칸타타 & 창작합창곡

문화 | 대극장 9.22.(화) 7:30pm
All Seats 10,000원



제182회 정기연주회
2020 송년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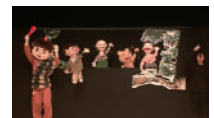
문화 | 대극장 12.17.(목)~12.18.(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합창단 _ 특별연주회

전래동요에 의한 가족 음악극
옛날 옛적에 [취소]

문화 | 중극장 5.21.(목)~5.22.(금) 7:30pm
All Seats 10,000원



합창으로 만나는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문화 | 중극장 5.22.(금) 7:30pm
All Seats 10,000원



가요합창음악회 2020 Summer Fantasy
Romantic Concert - 김동률 편

문화 | 대극장 7.23.(목) 8:00pm
R 20,000원 S 10,000원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3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10.19.(월)~10.22.(목) 6:00pm
All Seats 무료



청소년을 위한
힐링콘서트 [취소]

문화 | 대극장 11.20.(금) 7:30pm
All Seats 10,000원



무용단 _ 정기공연

제81회 정기공연
**수석안무자 선정공연 2
<Odyssea FE2020b>**

문화 | 대극장 7.30.(목)~7.31.(금) 7:30pm
All Seats 10,000원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제82회 정기공연
예술감독 취임공연

문화 | 대극장 11.5.(목)~11.6.(금) 7:30pm
All Seats 10,000원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 2013년 무용공연 작

무용단 _ 특별공연

특별공연
2020 우리춤 산책

문화 | 사랑채 5.7.(목)~5.8.(금) 7:30pm
All Seats 5,000원
▶ 무관객 온라인 생중계



특별공연
2020 춤추는 동화 [취소]

문화 | 사랑채 5.11.(월)~5.22.(금)(토, 일 제외) 11:00am
※단체공연에 한함



특별공연
2020 안무가 양성프로젝트 '몸으로 쓰는 시'

문화 | 중극장 8.20.(목) 7:30pm
All Seats 5,000원



국악관현악단 _ 정기연주회

제205회 정기연주회
**중견 해금연주자를 위한
협연의 밤 시리즈 I [취소]**

문화 | 대극장 2.25.(화) 7:30pm
R 10,000원, S 5,000원



제205회 정기연주회
김종욱 제9대 수석지휘자 취임 연주회

문화 | 대극장 5.30.(토) 5:00pm
R 10,000원, S 5,000원



제206회 정기연주회
호국보훈의 달 기념 '화평음악회'

문화 | 중극장 6.26.(금) 8:00pm
R 10,000원, S 5,000원



제207회 정기연주회
창작실내악

문화 | 챔버홀 11.25.(수) 8:00pm
All Seats 10,000원



제208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12.23.(수) 8:00pm
R 10,000원, S 5,000원



국악관현악단 _ 특별연주회

특별연주회
신년다례연(新年茶礼宴)

문화 | 대극장 2.4.(화) 7:30pm
R 20,000원, S 10,000원



특별연주회
雅樂의 밤

문화 | 챔버홀 5.21.(목) 8:00pm
All Seats 10,000원



특별연주회
명품 재창작 관현악

문화 | 중극장 7.14.(화) 8:00pm
R 10,000원, S 5,000원



특별연주회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문화 | 대극장 8.12.(수) 8:00pm
R 10,000원, S 5,000원



특별연주회
제46회 청소년 협연의 밤

문화 | 중극장 9.25.(금) 8:00pm
All Seats 2,000원



특별연주회
'풍류' 명가·명창·명무의 무대

문화 | 중극장 10.20.(화) 8:00pm
R 10,000원, S 5,000원



극단 _ 정기공연

제67회 정기공연
벚꽃동산 [취소]
시민 소극장 4.6.(월)~4.11.(토)
평일 7:30pm / 주말 5:00pm
All Seats 10,000원



제68회 정기공연
갈매기
문화 대극장 7.3.(금)~7.12.(일)
평일 7:30pm / 주말 5:00pm
All Seats 20,000원



제69회 정기공연
체흐의 이야기
시민 소극장 11.12.(목)~11.14.(토)
평일 7:30pm / 주말 5:00pm
All Seats 10,000원



극단 _ 특별공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제1기
뮤지컬 '피터팬' [취소]
금정 대공연장 8.22.(토)~8.23.(일) 5:00pm
R 10,000원, S 5,000원



특별공연
얼씨구 왕국의 삼총사 [취소]
문화 사랑채 4.16.(목)~5.4.(월)
평일 11:00am / 주말 3:00pm
5.5.(화) 11:00am, 2:0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_ 정기연주회

제63회 정기연주회
라흐마니노프 [취소]
문화 대극장 4.3.(금) 7:30pm
All Seats 2,000원



제64회 정기연주회
Never Ending Story(주제: 이야기)
문화 대극장 9.11.(금) 7:30pm
All Seats 2,000원



제65회 정기연주회
2020 송년음악회 'Travel to America'
문화 대극장 12.22.(화) 7:30pm
All Seats 2,000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_ 특별연주회

특별연주회
위로
문화 중극장 8.14.(금) 7:30pm



특별연주회
유망주음악회 III - 실내악
문화 챔버홀 10.24.(토)~10.25.(일) 7:30pm
All Seats 무료



특별연주회
2020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문화 대극장 11.17.(목) 7:30pm
All Seats 2,000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_ 정기연주회

제157회 정기연주회
양탄자 타고 음악여행 Season II [취소]
문화 대극장 5.30.(토) 5:00pm
All Seats 2,000원



제158회 정기연주회
문화 대극장 9.12.(토) 5:00pm
All Seats 2,000원



제159회 정기연주회
Merry Christmas in Love
문화 대극장 12.19.(토) 5:00pm
All Seats 2,000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_ 특별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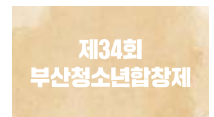
특별연주회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하는 Friendly Concert
문화 대극장 7.25.(토) 5:00pm
All Seats 2,000원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음악회
교과서 음악회 [취소]
문화 중극장 8.21.(금)~8.22.(토) 5:00pm
All Seats 2,000원



특별연주회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대극장 11.7.(토)~11.8.(일) 5:00pm
All Seats 무료



특별한혜택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Busan Cultural Center

VIP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0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4월 24일(금), 5월 29일(금), 7월 31일(금),
8월 28일(금), 10월 30일(금), 12월 8일(화)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40매)

김준수, 두번째달 '팔도유람' 취소

3월 25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20매)

컨템포러리 국악 그룹 '블랙스트링' 취소

4월 23일(목) 오후 7:30, 24일(금) 오전 11: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당 선착순 R석 20매)

에이프만 발레 '안나 카레니나' &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취소

5월 23(토)-24일(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당 선착순 R석 20매)

연극 '여자만세 2' 종료

5월 28일(목) 오후 3:00,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종료

5월 30일(토), 6월 27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40매)

가족극 '우리는 친구다' 종료

7월 3일(금) 오전 10:00, 4일(토) 오전 11:00,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3일 공연에 한해 선착순 S석 20매)

연극 '어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 종료

8월 1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7월 31일 공연에 한해 선착순 S석 20매)

서울발레시어터 '한여름 밤의 꿈' 종료

7월 25일(토)-26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25일 공연에 한해 선착순 S석 20매)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챔버페스티벌'

8월 15일(토)-29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챔버홀(회당 선착순 20매)
※ 8월 29일 공연 제외

국립현대무용단 '스윙' 종료

8월 28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S석 20매)

**부산 신진예술 페스티벌 최우수작
'토장군을 찾아라'**

9월 3일(목)-4일(금) 10:30, 13:30, 5일(토) 11:00, 1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R석 100매)

연극 '결혼'(대전예술의전당 공동제작)

9월 18일(금) 오후 7:30, 19일(토)-20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S석 20매)

아스토르 피아졸라 퀸텟 콘서트 취소

9월 24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연극 '십이야(十二夜)' 종료

9월 26일(토)-27일(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6일 공연에 한해 선착순 S석 20매)

서울시립교향악단 2020 내셔널 투어 종료

10월 3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VIP석 40매)

안은미 컴퍼니 'A-드래곤' 잠정연기

12월 4일(금) 오후 7:30, 5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R석 20매)

2020 제아음악회

12월 31일(목) 오후 10: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빈소년합창단 2021 신년음악회 종료

2021년 1월 23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 종료

2021년 2월 21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 1인 2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고객개발팀(607-6116)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명예회장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

부회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상온누리약국

사무처장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이사회원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광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투체어지점 지점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일반회원

강남주 (전)부경대학교 총장
 김 균 (주)선경화성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성수 (주)태영유니텍 대표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JK 회장
 김진동 원창에프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노경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노은식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재청 해운대 로드비치호텔 회장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박흥근 부일정보링크(주) 대표이사
 성승모 (전)해운대 동백합창단 단장
 신명희 리더스금융판매 워드컨설팅 대표
 신상현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윤영기 (주)선광 대표이사
 이경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현 성모안과병원 병원장
 이성임 엘가 대표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정일 SK증권(주) 이사
 임은자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민섭 공연예술 전위 실장
 정영희 (전)국회의장
 정의화 숙편한내과 원장
 조성락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종래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조충영 세무법인 영지 대표이사
 진경옥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하정태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한원우 신세계 안과의원 대표원장
 허 준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장
 현임숙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부산시립예술단 전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예술의 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대극장 좌석 네이밍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원

구분	후원 금액	법인/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컨퍼런스 홀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이사 회원	500 이상	법인/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1회 무료 (연간)	2개 좌석
	3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20% 할인	1개 좌석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전시, 아카데미, 컨퍼런스 홀 사용 등은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함. ※ 일부 공연 및 전시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사무처장 김홍재(010-3560-2511)

법인 가족과 나누는 특별한 시간, 더 큰 문화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BSCC Business Membership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법인이라면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01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북 교환권으로 유료 판매하는 공연 프로그램 북을 교환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세요.

02 멤버십 전용 카드 및 이벤트 제공

회원카드에 기업 로고를 표기해드립니다. 법인회원 멤버십을 위한 회원 전용 초청 이벤트로 예상치 못한 초대와 즐거움까지 함께 누리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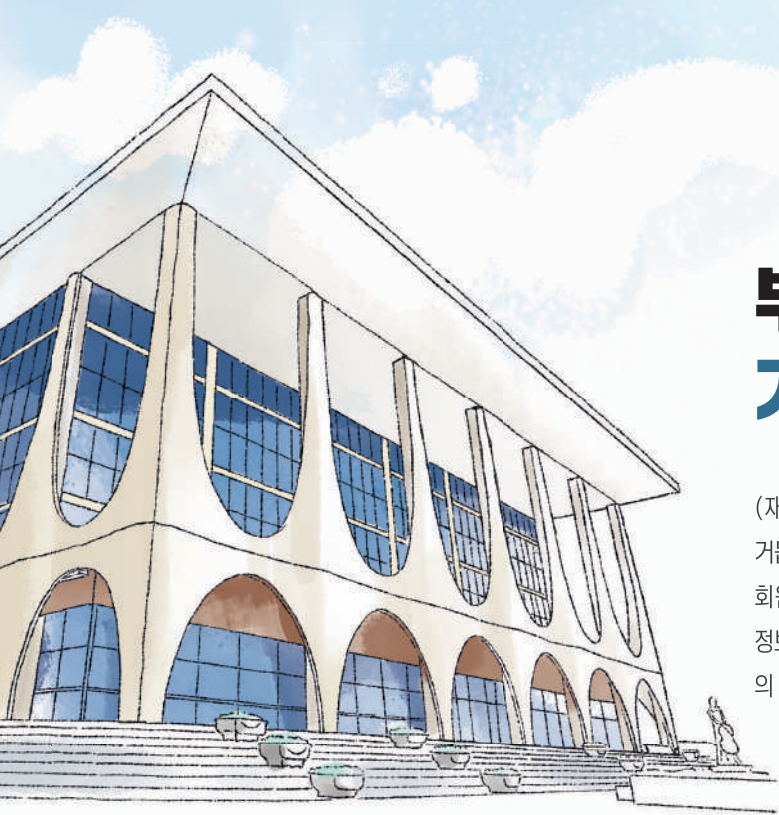
03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 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발급 카드)		500만원(50매)	300만원(30매)	100만원(10매)
공통혜택		회원카드 기업 로고 표기 공연 및 전시할인(20~50%)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월간지 <예술의 초대> 발송 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회원 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 문화회관 주차장 무료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제휴업체 할인(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등급별 추가 혜택	기획공연 유료 프로그램 북 교환권	90매	60매	30매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6개월	3개월	1개월
	월간 <예술의 초대> 광고	2회	1회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6개월	3개월	1개월
	회관 공식 SNS 홍보(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6개월	3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개발팀(051-607-6114~7, www.bscc.or.kr)



일상을 컬러 **플러스** 하게
문화를 파워 **로**

부산문화회관 **플러스회원** 가입 캠페인 EVENT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 부산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플러스 회원 가입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무료 회원인 플러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문자를 통한 공연 알림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공연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회원 가입으로 설렘과 감동의 순간을 함께하고 푸짐한 경품 혜택도 누리세요!

대상

캠페인 기간 중 가입한 회원

가입기간

2020년 7월 1일(수) ~ 12월 31일(목)

참여방법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모바일

당첨자 발표

2021년 1월 중, 당첨자 개별공지

경품내용

선물1	20명	부산문화회관 VIP회원권(10만원 상당)
선물2	30명	부산문화회관 스페셜회원권(5만원 상당)
선물3	50명	부산문화회관 예술단회원권(3만원 상당)
선물4	100명	신세계 상품권(2만원/모바일)
선물5	10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모바일)
선물6	100명	부산문화회관 월간지 <예술의초대> 1년 구독권
선물7	100명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5매

□ SMS/이메일 수신동의

플러스 무료 회원의 혜택인 공연 문자 알림과 뉴스레터 수신을 위하여 SMS/이메일 수신동의는 필수입니다.

□ 정보제공 활용 동의

제공해주시는 개인정보는 (재)부산문화회관의 회원 가입 및 공연 정보 등을 제공하고 경품 추첨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 플러스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며, 경품 추첨에 제한이 있습니다.

(재)부산문화회관 플러스회원 가입신청서



이 름

아 이 디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위해 필요합니다.

전화번호

홈페이지 로그인 시 최초 비밀번호로 설정됩니다.

이 메 일

주 소

이벤트 당첨 시 기재해 주신 주소로 경품 발송됩니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75주년 광복절 기념 및
코로나 극복 기원 프로젝트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위로

Consolation

· Program ·

· **W.A.Mozart** REQUIEM D minor K.626
Requiem und kyrie
Dies irae
Lacrimosa

· **A.Vivaldi** Quattro Stagioni No.2 Estate(Summer) G minor 3rd mov (presto)

· **F.Wildhorn** Jekyll And Hyde "This is the moment"

· **A.L.Webber** The Phantom of Opera "All I ask of You"


· **P.L.Tchaikovsky** Symphony No.4 Op.36 4 mov. finale Allegro con fuoco

· Arirang Rhapsody

· The Children Of Sanchez

2020.08.14(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균일 2,000원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예매 www.bscc.or.kr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8

셔틀버스 운행(무료) 운영시간 18:30, 19:00 셔틀버스 타는 곳 : 대연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터리 방향 100M 마지막 공연 종료 15분 후 : 문화회관 주차장 입구 출발 > 대연역 하차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Body Language

2020 안무가양성프로젝트

몸으로 쓰는 시

농(弄)...사무치다

안무_ 장래훈

따라지

안무_ 윤은하


얼룩무늬 저 여자

안무_ 김미란

2020. 8. 20 (목)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관람료 5,000원(만 6세 이상 관람) 문의 607-6000 / www.bscc.or.kr

 서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역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30M "7번가피자" 앞 → 문화회관 주차장 • 출발시간 | 문화회관행 | 월~금 18:30/19:00(공연 있는 날에 한함) | 대연역행 | 공연종료 후(1회 운행)



부산시향의
클래식은 내친구

BPO Youth Concert

2020. 8.11 TUE 15:30 |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거리두기 좌석제)
Main Theater, Busan Cultural Center

어느 청소년의 사연과 신청곡
A Story and Song Request from a Youth

모차르트 · 플루트 협주곡 제1번
Mozart · Flute Concerto No.1 in G major, K.313

브리튼 ·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Britten · The Young Person's Guide to the Orchestra, Op.34

연 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이민형 Min Hyung Lee

내레이션 서보기 Bo Gi Seo, Narration

플루트 조예림 Ye Rim Cho, Flute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전석 10,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1~3(교향악단), 6116(정기회원)

사실 그 날,
용궁에선 기록에 남지 않은 비밀스러운 사건이 벌어졌다!

가족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



2019 부산 신진예술 페스티벌 최우수작 선정

2020.09.03(목) ~ 05(토)
부산 문화회관 중극장

목, 금 AM 10:30 / PM 1:30 토 AM 11:00 / PM 2:00

티켓 R석 3만원, S석 2만원(24개월 이상입장가) 문의 및 예매 051-607-6000(ARS 1번)

제작 ORO THEATER 극단 오오씨어터 주최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SWING

스윙

2020. 8. 28(금)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photo by Aiden Hwang

주최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문의/예매 |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1번) www.bscc.or.kr

인터파크 | 1544.1555 www.ticketpark.com

티켓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COUPON



20% Discount

안경나라(동래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10% Discount

밥을 짓고, 국을 담다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Busan Cultural Center

배시시(BSCC)TV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채널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 '배시시(BSCC)TV'입니다.
'배시시' 이름처럼 많은 분들의 입가에 배시시 미소를 짓게 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 전달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부산의 문화 소식을 쉽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검색

유튜브 검색창에 '배시시tv'를 검색해보세요.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
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선불카드
(\$100 이상 구매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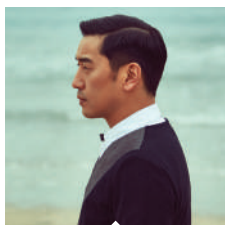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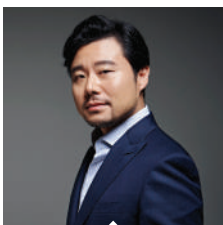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4.24^{Fri}

나의 기타 이야기
기타리스트 드니성호



5.29^{Fri}

동요, 클래식이 되다
피아니스트 박중화



7.31^{Fri}

바이올린 로망스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8.28^{Fri}

드라마틱 플루트
플루티스트 필립윤트



10.30^{Fri}

베토벤, 영웅이 되다
피아니스트 홍민수



12.8^{Tue}

오페라, 재즈가 되다
바리톤 이응광

부산문화회관 증극장

오전 11시 전석 10,000원

예매 및 문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051-607-6000) | 협찬 SHINSEGAE | 선착순 이벤트 음료와 빵을 무료로 드립니다.

마티네 패키지 안내 | 마티네 콘서트 6권 동시 구매시 30% 할인 | 4권 이상 동시 구매시 20% 할인 | 3권 이상 동시 구매시 10% 할인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0. 8. 31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34번길 4
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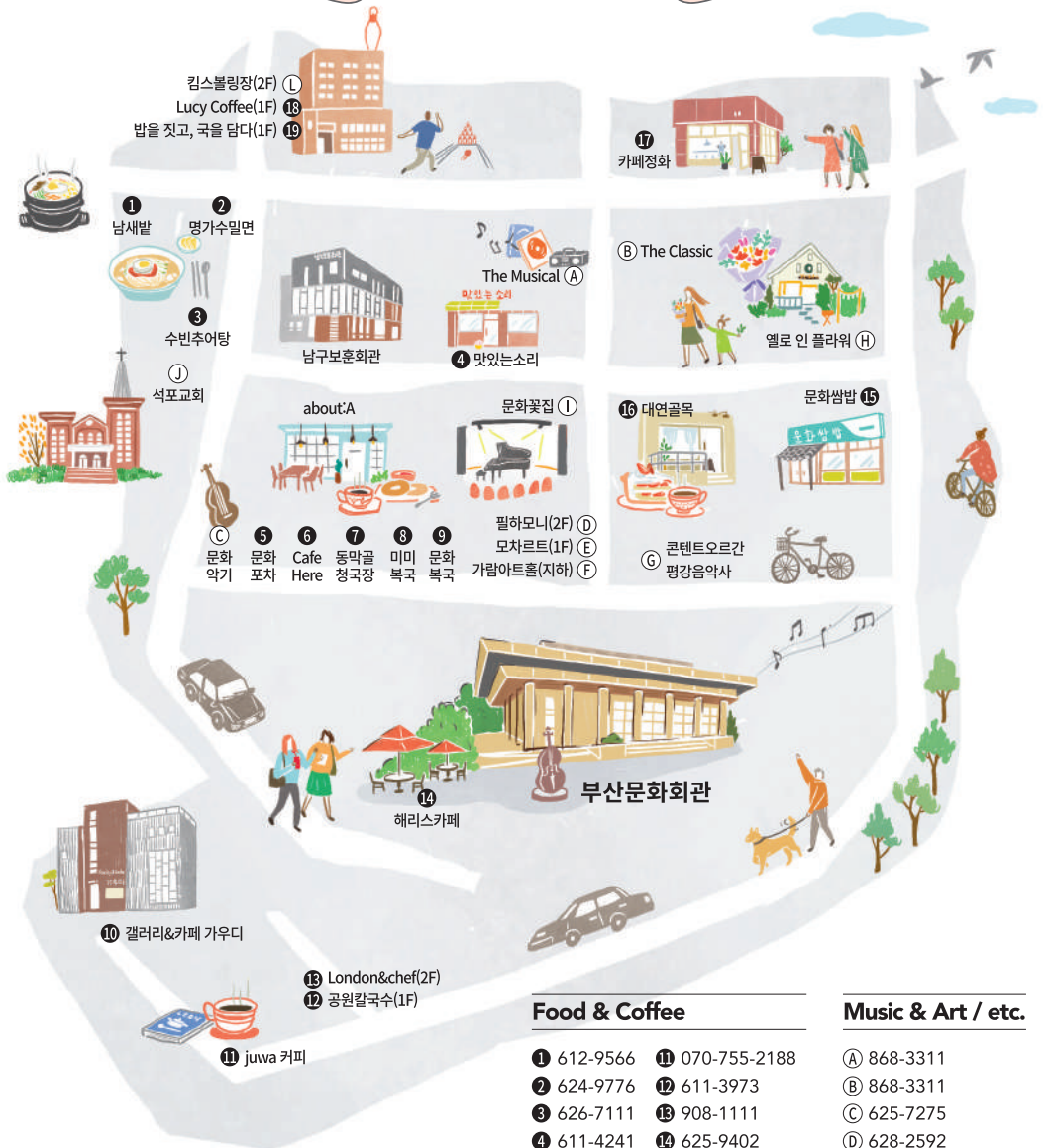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Surrounding map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Food & Coffee

- ① 612-9566 ⑪ 070-755-2188
- ② 624-9776 ⑫ 611-3973
- ③ 626-7111 ⑬ 908-1111
- ④ 611-4241 ⑭ 625-9402
- ⑤ 626-4448 ⑮ 626-2292
- ⑥ 622-7412 ⑯ 010-3996-6498
- ⑦ 611-3589 ⑰ 623-0772
- ⑧ 628-8009 ⑱ 628-3832
- ⑨ 621-7040 ⑲ 714-3559
- ⑩ 621-5788

Music & Art / etc.

- Ⓐ 868-3311
- Ⓑ 868-3311
- Ⓒ 625-7275
- Ⓓ 628-2592
- Ⓔ 622-1456
- Ⓕ 621-6669
- Ⓖ 626-7900
- Ⓘ 080-337-3370
- Ⓙ 622-9722
- Ⓚ 625-8704

COUPON



밥을 짓고, 국을 담다

정식 1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대연스포츠텐터 킹스볼링장 1층
051)714-3559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안경나라(동래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 108번길 5
051)505-8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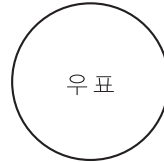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 □ □ □ □



받는 사람

이름

주소

□ □ □ □ □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
.....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
.....

3. 개선해야 할 점은?

.....
.....



I N V I T A T I O N T O T H E A R T S

2020

08

AUGUST

